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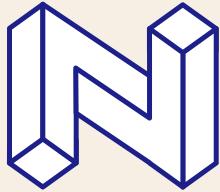


여신 수업



Talking Point
진로 교육

혁신
수업



Vol. 20 | 2023 | 겨울호 | 중고등



왼쪽 QR코드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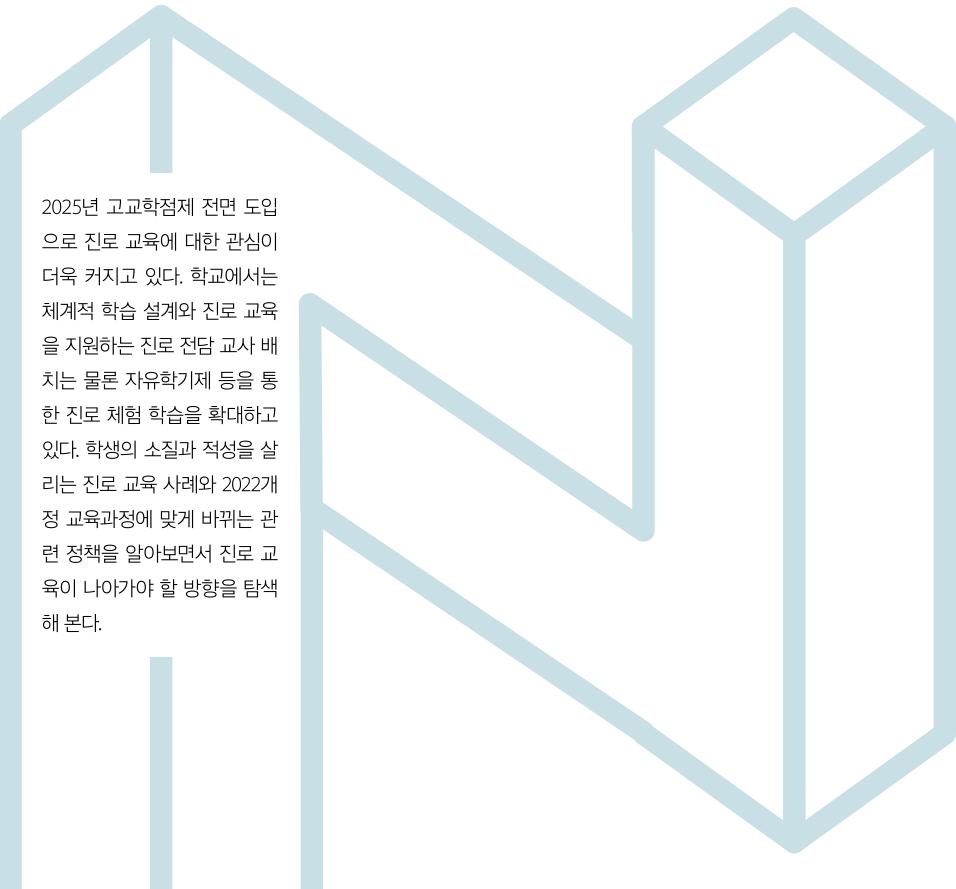
엠티처의 혁신수업N 웹진 바로보기



에 들어오세요.
다양한 교육 정보와 수업 사례를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TALKING POINT

진로 교육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체계적 학습 설계와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진로 전담 교사 배치는 물론 자유학기제 등을 통한 진로 체험 학습을 확대하고 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진로 교육 사례와 2022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바뀌는 관련 정책을 알아보면서 진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 본다.

04 PEOPLE

삶의 의미와 열정을 찾아 주는
진로 교육 이야기
_ 곽상경 선생님

12 중등 COLUMN

진로 교육과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_ 김원배 선생님

24 중등 ISSUE FOCUS

자유학기제,
어떻게 달라질까?

42 중등 운영 사례 02

DNA(Dream Now AI)
디지털 프로슈머 진로 여행
_ 조두연 선생님

52 고등 COLUMN

학생 성장을 위한 시작,
고교학점제와 진로 교육
_ 임수웅 선생님

64 고등 ISSUE FOCUS

고교학점제로
학교에서 달라질 것들

28 중등 운영 사례 01

고교학점제와
중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
_ 하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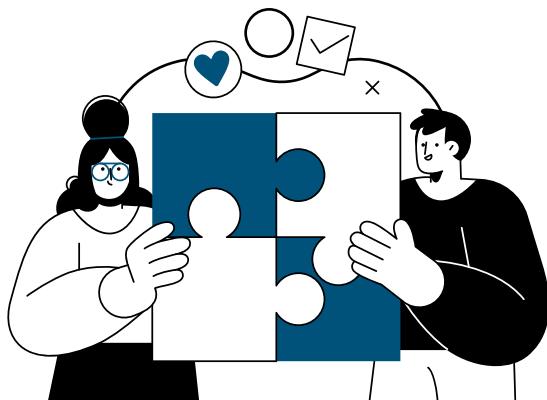
72 고등 운영 사례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의
지난 이야기
_ 전주중앙여고, 대정고, 청주여상,
인천전자마이스터고



COVER PEOPLE

곽상경 선생님
(신성중학교)
곽상경 선생님이 『혁신수업N』의
표지 인물로 선정된 배경과 교사
로서의 철학 등 자세한 이야기는
4쪽 'PEOPLE'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86 교육뉴스

2023년 4분기 교육 분야 뉴스
교육부,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발표

90 학급경영

행복한 담임 교사가
되기 위한 습관
_최선경 선생님

106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지금 우리 학교는...
_황유진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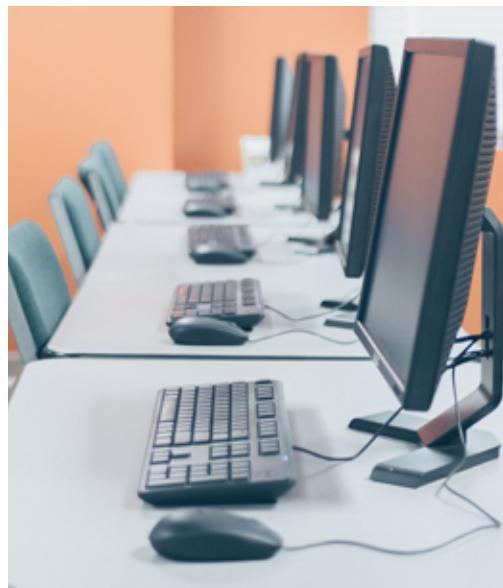
116 에듀테크

AI 디지털 교과서
톺아보기
_조재범 선생님

126 REVIEW_교과서

미래엔 과학 교과서 활용 후기
창의적 융합 수업의 파트너
_이지선 선생님

미래엔 통합과학 교과서 활용 후기
학생과 교사를 위하는
수업 재창조의 교과서
_김경미 선생님

134 추천 도서**136 NOW MIRAE-N****142 독자 후기****143 NOTICE**

삶의 의미와 열정을 찾아 주는 진로 교육 이야기

곽상경 선생님(신성중학교)

곽상경 선생님은 교사 경력 23년 차 베테랑이면서 6년 차 진로 전담 교사로서 학생들과 별의별 꿈을 함께 꾸고 있는 ‘별꿈쌤’입니다. 한발 앞서 학생의 진로를 고민하고, 별별 꿈으로 미래를 그리는 학생들에게 그 에너지를 전달하며 진로 교육의 다채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신성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 성결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강사
- 경기도중등진로교육연구회 고문위원
-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 수업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 안양과천 꿈이음 징검다리학교 지원단



#별금씩 #삶 #열정 #진로 #교육

진로 전담 교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진로 전담 교사로 교과 전공을 바꾸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국어 교사로 16년간 근무했고, 진로 전담 교사 양성 과정을 거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교원 자격을 취득하여 2018년부터는 진로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하면서 고등학교 진학 지도를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이 단순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것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취업이나 대학,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걸음이 고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로 지도에 더욱 힘을 쓰게 되었고, 그러한 관심이 진로 전담 교사로 저의 진로 또한 바뀌게 했습니다.

진로 교육 측면에서 담임·교과·진로 전담 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라기보다는 역할 분담이랄까요. 담임 교사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 예를 들면 친구와의 관계, 학교 적응 문제, 의사소통 방식, 또래 문화, 학업 성취도 전반 등에 대해 두루 살피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저도 담임을 할 때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때 제 닉네임이 ‘스쿨맘’이었어요.

교과 교사는 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업 역량에 대해 평가해 줄 수 있지요. 수업 중 태도나 과제 수행 방식, 전공에 대한 적성과 역량에 대해 살펴 줄 수 있는 전문가이죠.

진로 전담 교사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상담하면서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진로 교육은 인생 교육이거든요. 삶을 디자인하는 상담이고요. 학생 하나에 오롯이 붙어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해도 부족할 수 있는데 다수의 학생들을 만나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할 때 교과와 담임 교사의 지혜를 빌리기도 하고 상의를 하기도 하고 실행 과제를 학생에게 줄 때 협업하여 함께 지도하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는 학생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진 원팀(One team)인 것이지요.

진로 상담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학년별, 시기별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에만 근무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중학교는 좀 더 다양한 탐색과 넓은 범위에서의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학년에서는 자유학기(년)제를 운영하며 각종 진로 체험과 더불어 직업과 자기 이해, 중학교 적응에 대한 진로 상담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2학년부터는 시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코칭과 고등학교 유형 안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3학년 때는 고교 입시 일정에 따라 고교 탐색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담에 중점을 둡니다.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일반계고·특수목적고 등 학교의 유형에 따라 상담이 다를 거예요.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고1에서는 고등학교 학업(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기본 상담과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2는 내신 성적 및 선택 과목 관리, 진학 희망 대학이나 취업처의 전형과 선발 내용 분석이 필요하겠죠. 3학년 때에는 본격적으로 스무 살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야겠네요.

그렇다면 중학교 시기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시기는 진로를 결정한다기보다 잠정적인 결정을 하되, ‘자기와 세상에 대한 탐색이 이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 교사로 일하고 있던 저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교과 교사에서 진로 전담 교사로 진로를 바꾸었잖아요.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우리들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오랫동안 ‘결정’으로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비롯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시행되는 진로 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은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생각을 했다고 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무쌍한 미래 사회, 당황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물론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든 잘 이용하고 극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처 능력은 머리로만 배울 수 있는 것도, 단기간에 훈련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은

배우고, 경험하고, 연습하고, 표현하는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교육과정은 사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의 한 예정인데, 다른 학기에 비해 자유학기제에서 좀 더 자유로운 탐색과 경험이 가능하지요. 이때의 경험이 ‘대처 능력’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대통령, 군인, 마트 사장님처럼 멋있어 보이거나 재밌어 보이는 것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주변에서 추천하거나 좀 더 의미 있어 보이는 장래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직업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만 능력은 아니지요. 기술 능력, 미적 감각, 운동 능력 등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찾고 전공이나 직업과 맞는지를 비교해 보기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딱 결정하고 그것만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나와 어울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보고 인생 계획을 위한 기본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진로 고민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요즘 학생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바른 선택인지,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고민이지만, 그 고민이 ‘진로 미결정’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이전에 비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무조건 잘해야 한다’, ‘성공 아니면 실패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아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기분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 정도입니다.

경쟁 사회, 셀럽들만 주목받는 시대, 경제적 격차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경험의 부족’이 그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실패를 해 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하거나 실패를 할 것 같은 위기에서도 어떻게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응할지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요. 조금 망치더라도 무언가를 스스로 해 봄야 하는데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터부시되다 보니 너무 성공 경험만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 작은 일에서부터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 봄야 하는데 말이죠. 정작 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 실패 극복 연습을 하기에는 일은 너무 커지고, 수습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단단한 마음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학교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중학교는 징검다리 단계예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가는 중간 단계이기도 하고, 전공이나 직무에 대한 배움이 시작되는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진짜 원하는 것,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심리 검사나 면담만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 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잖아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고 어쩌면 ‘나만의 생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 주고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해 주기 때문에 저도 심리 검사를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요. 특히 진로와 직업에서는요.



모의창업 활동 결과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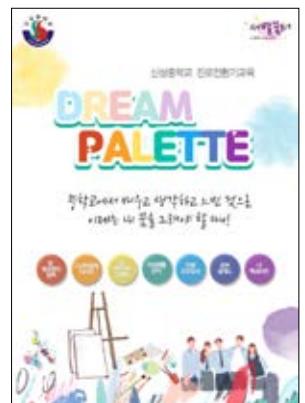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직업으로 삼았을 때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취미가 아닌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살아 있는 고민인데, 이것은 직간접 경험을 통해 깨우쳐야 합니다. 한 번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를 찾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만 제대로 진술할 수 있어도 고등학교를 어디로 진학할지, 가서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 공부는 어떻게 할지 쉽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와 ‘보는 만큼 알게 된다.’가 같이 교육과정에 작용해야 하고 배운 것을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더 배우는 프로젝트 형태의 진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성격, 환경, 실력, 취향 등 전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학교 진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고교에서 과목 선택, 공부 방법의 개발로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가능합니다.

2022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되는 진로 연계 학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진로 연계 학기는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중학교 3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꿈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연계 교육을 준비하는 시범 단계 수준이기는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공부,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유형과 진학 방법,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선택’을 하니까요. 그런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값이 나가는 물건이나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체질과 체형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나에게 잘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고등학교를 선택했다면, 고등학교에 가서 학업을 잘 수행할 힘을 길러야겠지요. 공부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체력이나 기술을 키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 ‘꿈 팔레트’입니다. 중학교 생활을 총정리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 교육과정을 살펴



꿈 팔레트 포스터



보고, 선택한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 최소량의 법칙, 고교학점제 디자인, 꿈 크로마토그래피, 공부 설계도 등의 세부 활동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로 교육을 말씀해 주세요.

진로 교육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생각이 자주 바뀝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열정을 찾아 주는 교육’이 진로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다, 요즘 아이들은 저렇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모의 창업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이건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학년 때 하는 활동이기에 고등학교 입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여러 학업을 수행하는데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과목이 중요하지요. 어쨌든 활동을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나 수행 평가를 앞두고도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와서 계속 작업을 이어 가더라고요. “시험 공부 먼저 해야지 이게 중요하니?”라고 말하면 “재밌잖아요.”라면서 점심도 먹지 않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아, 의미를 부여한 일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MZ 세대를 ‘Meaningful & Zealous 세대’라고 부릅니다. 무심한 것 같지만 의미 있는 것에는 열정을 다하는 세대입니다. 진로 교육은 자기의 삶에 의미를 갖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미를 찾으려면 자세히 알아야겠지요.

진로 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세요.

사실 사회의 변화는 늘 일어납니다. ‘미래는 빠르게 변화한다. 예전보다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변화의 폭은 거대하다.’라는 말은 종종에도 하던 말이지요. 우리는 이미 변화 속에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안에 있으니 변화를 낯설어하고 걱정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뭐든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사실 경험에 한계가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권하는 직업이나 학교들은 우리도 겪어 보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들은 풍월로 상담하고 매체 자료만 보고 추천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경험해 보고, 학생들과 함께 체험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역시 아주 낯선 것은 아니지요.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서 이미 과목 선택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신 성적이라든가 책임이 따르는 면이 없었을 뿐이지요. 선생님들도 대학에서 수강 신청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나에게 유리하고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고민했던 경험들을 고교학점제에 비추어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두고 학점제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 보는 것도 좋고, 동료 선생님들과 연구회나 학습 공동체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합니다. **N**

*곽상경 선생님의 활동과 수업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꿈쌤**
blog.naver.com/hisaura



 **kwakevelyn**
instagram.com/kwakevelyn/



진로 교육과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을까?”, “너희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 “너희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 “미래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아?”

매년 학기 초에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 그런 질문 처음 받아 봐요.”하며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말해 준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으려면 삶에 대한 질문들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줄 알아야 한다. 진로 교육은 다른 교과목과는 다르게 지식 전달뿐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자.

김 원 배

장충중학교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이다.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멘토링 38』,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 『단단한 자존감을 갖고 싶은 10대에게』 등이 있고, 공저 『유망직업 미래지도』, 『오늘도 읽는 중입니다』, 『줌을 알려줌』 등 10여 권의 도서를 집필했다.



1. 진로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진로 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을 돋는 교육의 과정이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진로 수업, 진로 심리 검사, 진로 상담, 진로 정보, 진로 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진로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자.

첫째, 진로 교육은 자아 특성의 발견과 계발이다. 자신에게 맞는 일과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적성, 흥미, 인성, 신체적 특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에 맞게 능력과 적성을 가꾸어야 한다.

둘째, 진로 교육은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일과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체계적인 탐구 없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현실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위험이 있다.

셋째, 진로 교육은 일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적극적인 태도를 육성한다. 교사와 부모의 말 한마디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진로 교육의 관점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넷째, 진로 교육은 진로 선택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기르게 한다. 진로 교육은 자신의 미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진로 교육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도록 돋는다.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진로 교육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진로 교육이 국가와 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진로 교육은 편중된 인력이 아니라 균형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려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여러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적성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진로 교육이 제대로 되면 성적만 중요시하는 사교육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명문고, 명문대를 가려는 과열된 사교육은 잘못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진로 교육은 이러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이다.

셋째, 진로 교육은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한다. 직업 윤리를 강조하는 진로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는 건전한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진로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의 직업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주고 그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서 올바른 직업관이 형성된다면, 직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감소하고 직업 생산성과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진로 교육은 직업 교육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심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처음 도입되었고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에서 선택해서 실시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2018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강의식이나 암기식 수업을 줄이고 토론,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오후에는 주제 선택 활동·예술 체육 활동·동아리 활동·진로 탐색 활동 영역의 특화된 방식으로 자유학기 수업 활동이 진행된다. 각 영역별 활동의 특징을 살펴보자.

2023학년도 2학기 자유학년제 주간 수업시간 운영 계획												
요일 시간	일	화	수	목	금							
• 교육 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												
5	교과수업	교과수업		교과수업	동아리(스포츠/체육활동)(17시간)						교과수업	
6	교과수업	예술체육활동(8시간)				주제선택활동(8시간)						
7		3D 아트반	디자인 반	공예반	댄스반	활동수학반	활동영어반	스�피치반	급수학자반			
8												
과목 시수	국어	도덕	수학	과학	기적	영어	체육	미술	환경	진로	보건	수학
교과수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프로그램	체 [체육-체-체]		공예반 (0~0~0) (5~1)		기업가 디자인반 (0~0~0) (5~1) 기술 기기반 (0~0~0)	댄스반 (0~0~0) (5~1) 예술 총합예술 (0~0~0)	3D아트반					
	체 [수체-체-체]		활동수학반 (5~1)		문화체육반 (0~0~0) (5~1)	활동영어반 (5~1)	스페셜반 (0~0~0) (5~1) 미술반 (0~0~0)					
활동 영역	프로그램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총 일수		
예술체육활동 (8)	댄스반, 기업가디자인반, 공예반, 3D아트반			22, 29	05, 12, 19, 26	10, 24, 31	07, 14, 21, 28	05, 12, 26	02	17세자 (34시간)		
주제선택활동 (8)	활동수학반, 활동영어반, 스피치반, 급수학자반			17, 24, 31	07, 14, 21,	09, 12, 26	02, 09, 23, 30	07, 14, 21,	04	17세자 (34시간)		

2023학년도 2학기 장충중학교 자유학년제 주간 수업 시간 운영 계획

첫째, 주제 선택 활동은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교과와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 범교과 학습 주제 활동과 창의적인 체험 활동 중에 자율 활동의 창의 주제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예술 체육 활동은 음악, 미술, 체육 과목에서 확장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 예술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경쟁 교육 대신에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 계발, 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및 행복감을 갖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셋째,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따른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관심 분야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자치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넷째, 진로 탐색 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자기 탐색, 직업 탐색, 미래 탐색 등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균형 있게 운영 한다. 단순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과와 연계한 학습 과정으로서 ‘사전 활동 - 체험 활동 - 사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이다.

3. 2025년 자유학년제 폐지 및 자유학기제 전환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의 학업 시기별 맞춤형 진로 탐색, 진학 준비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자유학기와 진로 연계 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중학교 적응 지원과 수업 개선을 위하여 1학년에서 1개 학기를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운영한다. 현재 4개 활동 영역도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 등 2개 영역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자유학년제가 폐지된 원인은 학습 결손과 진로 탐색의 실효성 문제, 콘텐츠를 운영하는 강사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부모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소홀하게 되고 결국 학습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 능력에 결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로 탐색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생들이 꿈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오히려 중학교 3학년쯤에 진로 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즉, 중학교 1학년 때에 실시되는 자유학년제는 너무 이르다.

자유학년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능력을 성적만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 스스로 미래의 가치를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유학년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진로 흥미 유발, 동기 부여에 있다.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동안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새롭게 시도하고 경험하여 본인의 진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평소 공부에 관심 없던 학생들은 공부 이외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기 부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자유학년제의 단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백세 시대에 학생들이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각 교과목 수업에서는 진로와 연계된 활동들이 이뤄져야 한다. 그만큼 교사들의 역량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발되어야 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자유학년제가 축소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좋은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준비 과정이 미흡했고 전국의 중학교에서 운영 과정상 혼란이 있었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분명히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위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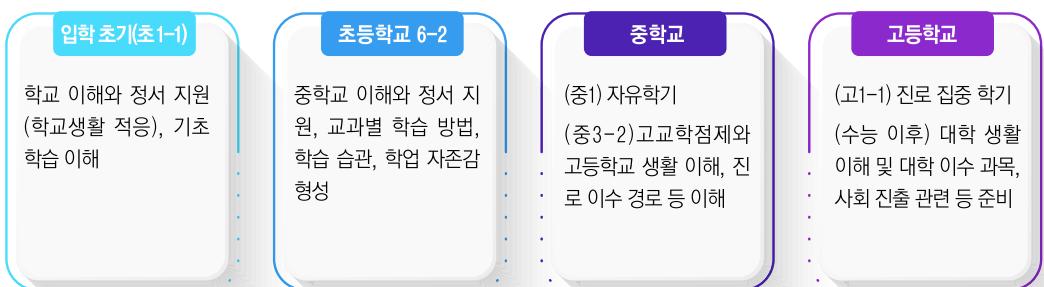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동기를 부여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교를 지원해 줘야 한다.



4. 진로 연계 교육 도입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성장의 연속선상에서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 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응 등을 위한 진로 연계 교육을 도입한다. 입학 초기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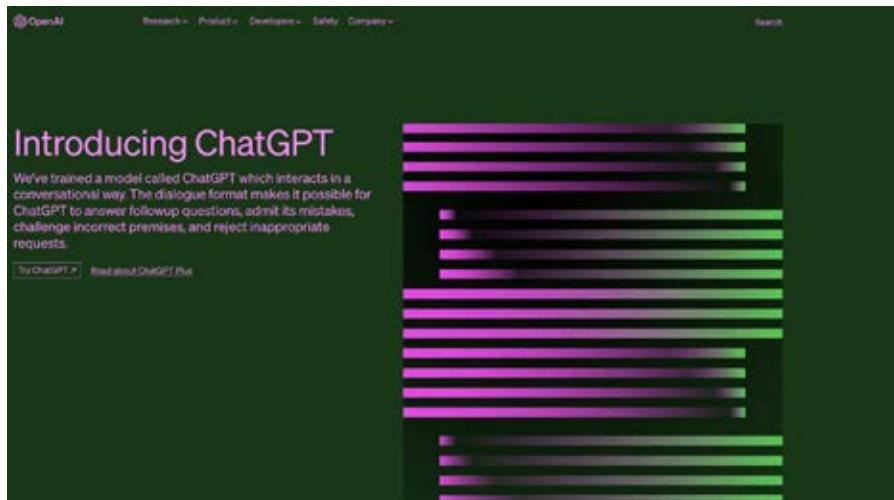
2022개정 교육과정 진로 연계 교육 운영 예시



교과 교육과정에서 진로 연계 교육은 학생의 역량 계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의 내용으로 영역을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상급학교로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한 상급 학교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상급 학교 교육과정과 환경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스스로 미래에 대한 진로 설계를 수립할 수 있다.

5. 챗GPT 시대의 진로 교육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초연결·초지능·초융합 시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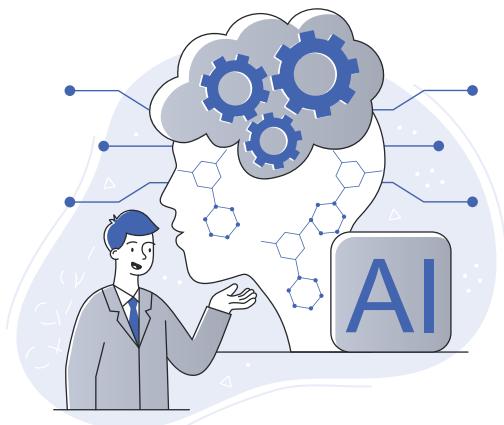
초연결 사회는 우리 일상생활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스며들어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된 사회이다. 센서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로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스마트폰 보급으로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 초연결 사회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증강현실 같은 서비스로 이어지지만 사생활 침해와 새로운 윤리, 질서 규범의 미정립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지능 사회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다. 빅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해지고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초지능 기술 진보는 더욱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량의 데이터와 지식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초융합 사회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 사물, 기기가 연결된 ‘초연결 사회’ 이후에 구현될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인프라 삼아 다양한 산업, 서비스, 문화 등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물 인터넷 사회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자동화 시스템에 매몰되어 현실 감각을 잃기보다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연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활용 기술과 인간의 기본 능력인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카이스트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는 “만약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 2022년 처음 챗GPT를 경험한 우리는 앞으로 인간의 자리와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하여 반드시 토론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타나 우리에게 물기 전에 스스로 먼저 묻고 답해야 한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이다.”라고 말한다. 여러 차원에서 우리는 새 시대의 벼랑에 서 있다. 이 시대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교사들이 먼저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진로 교육인가?’를 깊게 고민하고, 성적을 기준으로 일렬로 세우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교육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 역량 중심의 진로 교육

다니엘 H. 윌슨의 『로보포칼립스』는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발전한 로봇 기술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그린 소설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진보로 인해 로봇들은 인간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고, 인류는 로봇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 로봇들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제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복잡한 전략을 세우며,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은 로봇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

『로보포칼립스』에서 로봇과 인간의 대립, 생존을 위한 인류의 저항, 그리고 기술과 윤리 사이의 딜레마 등 로봇이 인류의 삶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로봇은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고,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감정과 사랑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한다.

택시 운전사나 화물 운전사는 자율 주행차에 밀려나고, 변호사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패배하고, 의사는 인공지능 의료 진단 시스템 장치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들도 있다. 인간은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따뜻함과 친근함이 있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독창성과 감동을 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에 달을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한다.

과학 기술은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인공지능은 산업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직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현재의 직업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미래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직업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3년 2월 15일 『KRIVET Issue Brief 251호(AI는 새로운 일과 직업의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통해 인공지능이 직업 세계의 변화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도입될 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직업이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일의 속성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일과 직업이 창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그에 따른 일의 숙련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직업의 핵심 작업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직업이 AI에 의하여 대체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동화 위험 예측 결과, 고위험군 직업 수가 줄어들고 중위험군 직업 수가 대폭 증가하며, 직업들의 분산(AI로의 대체 확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대체 가능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측면(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의 제약 요인)을 고려하면 상당수 직업은 대체 가능성성이 중위험군에 속하는 바, 이 경우 새로운 직무에 대한 ‘재숙련화(Re-skilling)’와 AI를 활용한 기존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숙련 고도화(Up-skilling)’ 등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가 AI에 어떤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AI와 차별화되는 인간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 AI시대에 갖춰야 할 역량들을 살펴보자.

첫째, ‘창의 역량’이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능력이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은 AI가 할 수 없다. 그래서 AI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바로 문제를 찾고 정리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결국 ‘왜(Why)’를 찾는 노력이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창의 역량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 수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책 속에서 얻은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 속에서 창의 역량은 키워진다. 매일 읽고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코딩 능력’과 ‘AI 활용 능력’이다. 어느 마을에 두 개의 약국이 나란히 개업을 했다. A약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약을 처방해 주고 있고, B약국은 기존 방식대로 처방전을 받고 약사가 약을 처방해 준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져오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하면 되지만, 처방전 없이 약국을 찾은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손님에게 추천하게 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약국을 보자. 100미터 전방에 약국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AI가 손님을 인지하고 얼굴, 눈동자 등을 인식하여 손님의 인적 사항과 그동안 처방받은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알게 된다. 손님이 A약국으로 들어서면 약사는 AI가 처방한 약을 전달하면 된다. 손님의 상태를 완전히 미리 분석하여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춤형 처방은 약물 오남용도 방지하고 내 체질에 맞는 약으로 아픈 것도 낫게 해 줄 것이다. B약국은 손님이 들고 온 처방전대로 약을 주거나 손님의 증상을 듣고 간단한 약을 처방해 준다. 어떤 때는 약이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손님은 다른 약국을 찾게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약국이 더 경쟁력이 있는가? 당연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A약국이 맞춤형 처방을 해 주므로 손님이 많고 수입도 B약국에 비해 많을 것이다.

셋째, ‘유연성’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기존의 일부 직업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미래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직업이나 일상생활 변화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넷째, ‘인공지능과의 협력’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공지능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자기 통제, 관찰, 해석, 평가,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스킬을 요구한다.

여섯째 ‘문제 해결 능력’이다.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일곱째, ‘학습 의지’이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 내용의 혁신이 필요하며,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서 미래의 인재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과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과별로 핵심이 되는 개념적 지식을 선별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N**

*진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아래 주소와 링크 트리 QR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입정보포털: hischool.go.kr• 대입정보포털: adiga.kr•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go.kr• 학교알리미: schoolinfo.go.kr•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hinfo.sen.go.kr	 링크 트리
직업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career.go.kr• 구직·구인 정보와 진로·직업 정보 워크넷: work.go.kr• 국립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koreajobworld.or.kr	
진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career.go.k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rivet.re.kr• 한국고용정보원: keis.or.kr	

2022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어떻게 달라질까?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의 성장에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진로 연계 교육을 도입, 다양한 진로·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돋겠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2025년부터 중학교에 적용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본다.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 선택 운영으로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2개 학기) 동안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던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 선택 운영으로 변화된다.

대신 학생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한 학기 102시간으로 편성·운영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자유학기와 진로 연계 교육을 연계·운영하여 맞춤형 진로 탐색, 진학 준비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환경·지속 가능한 교육 관련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자유학기의 주제 중심 활동, 진로 활동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 자유학년 운영 (자유학기)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중 1개 학기 (자유학년) 1학년 1·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1학년 1, 2학기 중 1개 학기 선택) (자유학기) 1개 학기 + (진로 연계 교육) 상급 학교(학년) 진학 전 학기, 학년의 일부 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영역(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영역(주제 선택, 진로 탐색) 활동으로 편성·운영

자유학기는 운영 시기, 방법 등을 지역·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중복을 최소화했다. 중학교 적응 지원과 수업 개선을 위하여 1학년에서 1개 학기를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제 선택,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등으로 수업 혁신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자유학기 활동과 중복을 해소하고자 활동을 개선하였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교과(군)별 시수 감축 없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의무 편성 시간을 학년별 연간 34시간(총 102시간) 매 학기 운영하도록 하였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었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봉사 부분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은 자유학기의 진로 탐색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되므로 자유학기에 포함할 수 없다.

입학 초기·상급 학교 진학 전 진로 연계 교육 도입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성장의 연속선상에서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 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용 등을 위한 ‘진로 연계 교육’을 도입한다. 기존의 ‘미니 자유학기’ 및 ‘진로 연계 학기’는 모두 진로 연계 교육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교과 학습 연계, 진로 탐색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수준과 방법 등에 맞게 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운영 예시

초등학교 1-1	초등학교 6-2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학교 생활 적응), 기초 학습 이해 등	중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교과별 학습 방법, 학습 습관, 학업 자존감 형성 등	(중1) 자유학기 (중3-2)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생활 이해, 진로 이수 경로 등	(고1-1) 진로 집중 학기 (수능 이후) 대학 생활 이해 및 대학 선 이수 과목, 사회 진출 관련 등

출처: 교육부

중학교에서는 2, 3학년 자기개발 시기(정기고사 이후, 학기·학년말)를 활용하여 교과 연계·융합 프로그램, 상급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확대하여 진로 연계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교과 수업과 고등학교 교육과정(학점제, 선택 과목 등)의 이해, 희망 진로 구체화 등 중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학업과 진로 설계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학교 자율 시간’ 운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학교급에 따라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다. 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 자율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시간 중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 학교 자율 시간 도입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 현장에서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 시간 도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해당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포함한 학교급별 안내 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증원 및 모든 교원의 진로 교육 역량 강화

진로 진학 상담 교사(진로 전담 교사)¹⁾는 학교의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로, 2011년 3월 새롭게 도입되어 2014년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됐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 교과와 연계한 진로 교육을 추진하고 모든 교원의 진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교과 수업 시 진로 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한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 등 창업 연계 수업 모형 총 10종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진로 연계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진로 연계 교육 창업 체험 교육 가이드를 마련한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라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30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2025년까지, 중학교는 2027년까지 추가 배치한다. 미래 산업, 사회·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재교육 과정도 설계하여 연수가 이루어진다. 초·중등 교원, 학교 관리자 등 모든 교원에 대해서는 진로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 연구회를 지원한다. 교장 자격 연수, 초·중등 1정 연수 등 시도교육청의 각종 교원 대상 연수 시 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 교육을 위한 자율 연구 지원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진로 진학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

1) 중등 진로 전담 교사의 선발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격 기준은 공립 종고등학교 일반교과 정규교사로서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진로 전담 교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자(기준일: 2024. 9.1.)이다.
※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사서 교사, 전문 상담 교사 등은 제외, ※지원 서류 제출일 기준 휴직 또는 파견 중인 교사는 제외

01

고교학점제와 중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

하 희

구리여자중학교 진로 전담교사이다. 국어를 가르치다가 진로 교사가 된 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DREAM~Hi' 선생님이 되었다. 행복한·즐거운·유익한 교육을 목표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진로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책을 접두하고, 강의를 하면서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 학업 설계를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죽어 있는 학교를 깨울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엎드려 있는데, 아이들은 깨워도 일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수업하는 나도 지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지.”

한 고등학교 수학 담당 교사의 말이다. 수학 교과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진로와 상관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한 학생들, 이른바 ‘수포자’가 교실에 넘치고, 이로 인해 죽어 버린 교실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제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희망하는 학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공부하고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려고 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런 학생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목표와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 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교사들도 현장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지도하고는 있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는 힘든 게 사실이다. 성적대로 한 줄로 세워, 소위 명문대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진학했느냐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20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분적인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완성된 형태의 고교학점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는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가 없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융합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고교학점제’가 구원 투수로 등장했다. 고교학점제는 수동적인 태도로 주어진 과제만을 성실히 완수하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배움을 찾아 진로를 개척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01

고교학점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교육부 2021)’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추구한다고는 했지만, 수학능력평가에 초점을 두는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 왔다. 따라서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자신의 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과목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학급의 학생들이라도 각각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풍경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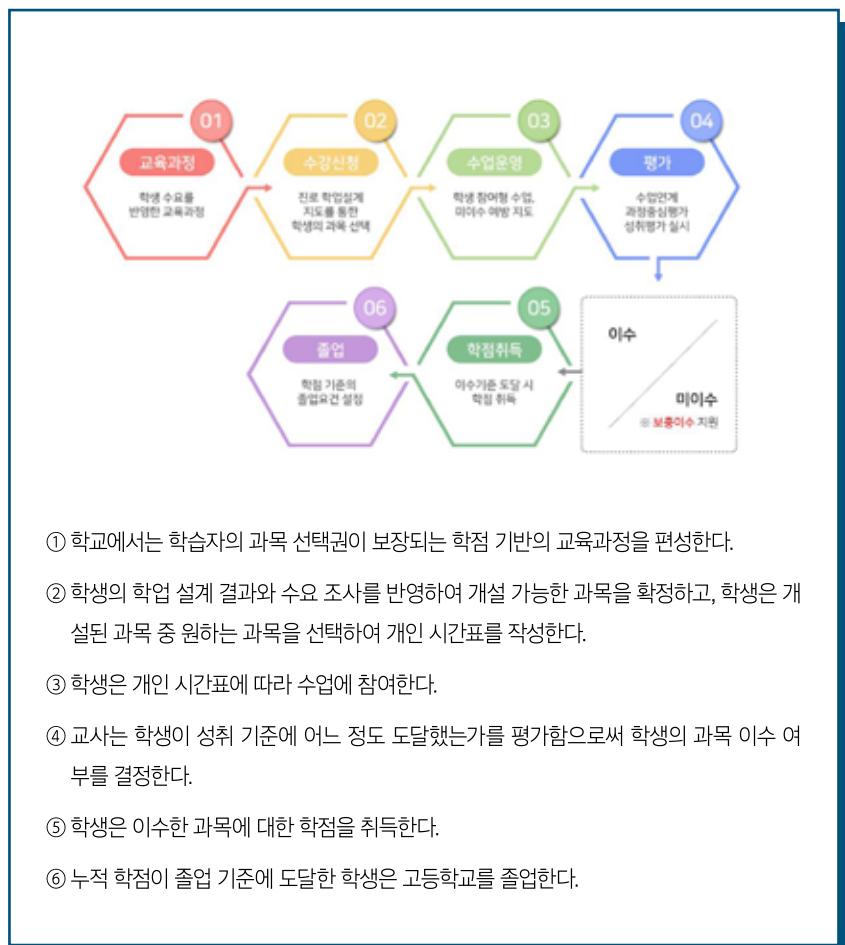
둘째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이다. 기준에는 학생의 성취도와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준다. 이를 위해 학교는 미이수를 예방하는 별도의 보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배움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선택한 과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전의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실에

서 잠만 자는 학생들도 졸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시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소수만을 최상위권의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 시스템이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수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교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서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이란, 수강 희망 학생 부족이나 교사 수급 문제로 단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개방 범위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

거점형	거점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에 개방
학교 연합형	2~4개 인접 학교가 협의하여 학교 내 미개설 과목을 상호 분배하여 공동 개설하고 연합 학교 학생에게만 개방

(2) 참여 학교 유형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

일반고 간 연계형	단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인근 학교가 모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
일반고-특성화고 연계형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에 개설된 수업 수강 기회 제공
일반고-특목고 연계형	특목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에 개설된 수업 수강 기회 제공

(3) 수업 운영 방법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면 수업 진행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수업 진행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진로 수업을 설계하다!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진로 개발 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직업 세계와 교육 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한다.

중학교 진로 교육의 목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진로 교육의 목표는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진로 연계 학기로 적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희망 진로를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진로 교육은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원하는 직업과 학과를 선택하여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 교육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작년부터 중학교 3학년들의 진로 수업 시간에 고교학점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차시 분량의 수업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기 이해 활동을 했다. 진로 탐색의 출발이 자신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때 수업에 앞서 이미 실시한 다양한 진로 심리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3학년 때 커리어넷을 활용하여 직업 흥미 검사(K형)를 다시 한번 할 것을 추천한다.

수업 목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활동	준비하기_나의 특성 종합하기 1. 고교학점제 바로 알기 2. 다양한 고등학교 탐색하기 3. 대학 계열과 학과 살펴보기 4.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하기 5.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5차시 진로 수업 구성안

[활동 1] 고교학점제 바로 알기

“선생님, 도대체 고교학점제가 뭐죠? 여기저기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부터 ‘고교학점제 수업’을 하겠다고 하자마자 나온 아이들의 반응이다. 그만큼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는 뜨겁다 못해 끓어오르는 핫 이슈이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눈앞에 둔 중3 학생들이기에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고교학점제에서는 모든 교과목을 자신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요?”,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을 한다는데 그 교과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선택해요?”,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데 저는 아직 희망 진로가 없어요.”,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 졸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학교를 한 해 더 다녀야 하나요?” 봇물처럼 터지는 아이들의 질문을 들으며, 이번 수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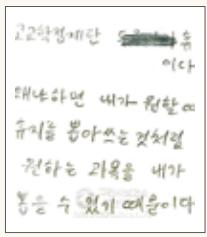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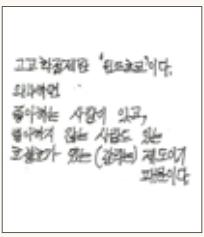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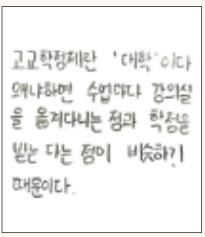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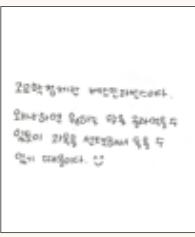
고교학점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교사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영상을 보고 고교학점제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 후, 자신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간결하게 적어 보도록 했다.

[선생님께 드리는 TIP - 고교학점제를 안내하는 영상 웹사이트]

1. 고교학점제 도입[출처: kbs 뉴스(2분)]
2. 고교학점제 소개[출처: 입시덕후(4분)]
3. 고교학점제 고교생 경험담[출처: 스브스뉴스(4분)]
4. 교육부 담당자가 말하는 고교학점제[출처: 교육TV(5분 43초)]



링크 트리

 <p>고교학점제란 원드로드 등 이다. 대학하면 내가 원하는 대 유지를 뽑아쓰는 것처럼 질하는 과목을 내가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p>	 <p>고교학점제란 '원드로드'이다. 대학엔 평가는 사람에 있고, 평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호생호가 있는 (급격히) 제도이기 때문이다.</p>	 <p>고교학점제란 '대학'이다. 대학하면 수업마다 강의실 을 옮겨다니는 청과 학습은 받는다는 점이 비슷하니? 때문이다.</p>	 <p>고교학점제란 '원드로드'이다. 대학하면 원드로드 학습 평가에 두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두 방법이 모두 같다. ㅠ</p>
---	---	--	---

고교학점제에 딱이다. 여러 학과를 네가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것 직장은 학교 학제로, 학교 시장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다.	고교학점에 딱 "현실"이다. 네가 원하는 직장과 학과로 학점을 이루는 데 있어 고급 경영학 과 고급 경영학과를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고교학점제란 마라탕이다.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마라탕이다.	고교학점제는 마라탕이다. 경영학과는 물론 경영학과 에서는 경영학 교학점제로 네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경영학)
고교학점제란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고교학점제란 마라탕이다.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고교학점제란 마라탕이다.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마라탕이다.	마라탕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온라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들이 정리한 메모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적은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이고 이를 학생들과 공유하며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대해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것 등에 관해 발표하면서 1차시를 마무리했다.

[선생님께 드리는 TIP]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의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멘티미터나 패들렛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간단하게 쓰고 또 즉각적으로 공유하기 좋다. 다양한 형태의 포스트잇에 직접 쓰도록 한 후 칠판에 붙이는 활동만으로도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다. 또한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을 읽어 주고, 글을 쓴 사람을 맞히는 활동으로 이를 수 있어서 학생들이 좋아했다.

[활동 2] 다양한 고등학교 탐색하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고등학교 선택이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유형별로 진로 경로가 다르고, 또 교육과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차시에는 각 고등학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고등학교의 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을 했다.

01

이때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로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각자가 원하는 진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등학교 정보는 개인별로 고입정보포털, 학교알리미, 또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했다. 이후 희망 고등학교의 유형이 비슷하거나, 희망 고등학교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고등학교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적어도 두 시간 이상을 필요로 했다. 여자중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은 직접 손으로 그리고 만들고 꾸미는 활동을 아주 즐거워하며 열심히 했다.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의 작품은 복도에 전시하여, 다양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았다.



학생들이 만든 고등학교 홍보 포스터

[선생님께 드리는 TIP - 고등학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



고입정보포털

특성화·
マイスター高 포털
(아이파이브)

학교알리미

[활동 3] 대학 계열과 학과 살펴보기

학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대학의 학과를 적어 보라고 하면 대부분 기껏해야 10~20개 정도를 쓴다. 또한 대학 계열에 대해 질문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대답한다. “계열이 뭐죠? 이과, 문과를 말하는 건가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졌어. 하지만 대학교의 학과는 계열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직업이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지? 그래서 대학에서 그 학과와 학과가 속한 계열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중요해. 희망하는 직업에 따라 계열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거기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면 대학교에 가서도 도움이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니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대학 계열과 학과를 탐색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활동했다. 먼저 대학의 계열과 특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대표적인 학과와 계열을 연결해 보도록 했다. 자신의 희망 직업과 학과, 그리고 그 학과가 속한 계열을 정리하는 활동을 간단하게 한 후 학과 퍼즐 맞추기 게임을 했다.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했다.

학과와 계열을 알아보는 활동지

[활동 4]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하기

고교학점제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미리 조사하여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나누어 주었다. 물론 학교 알리미나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찾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같은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모둠을 만들고 함께 교육과정 편제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교육과정 편제표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시로 한 학교의 편제표를 스크린에 띄워서 설명한 후, 모둠 별로 돌아다니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원하는 과목의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희망하는 학교가 바뀌기도 했다. 장래 희망이 방송 작가인 이 학생은 원래 미디어와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방송 작가의 역량을 키워 줄 다양한 인문·사회와 관련된 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의 예

[활동 5]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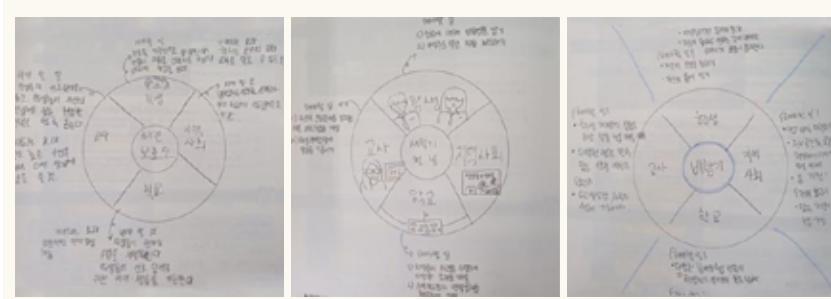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활동을 아우르기 위해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근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과 영역별(기초 교과, 탐구 교과, 체육·예술 교과, 생활·교양 교과)로 나누어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나 수능을 보는 교과는 꼭 선택하고,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한 후 진로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고르도록 했다.

이때, 패들렛을 활용하여 자신의 희망 학과, 희망 계열, 희망 고등학교, 선택 교과,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등을 기록하고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공통 과목 외에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 자신의 희망과는 상관이 없더라도 수능 때문에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교과목도 있다는 것, 각 고등학교마다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패들렛에 작성한 나만의 교육과정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을 학생, 교사, 학교, 지역 사회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하는 ‘서클 맵’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작은 원에는 고교학점제를 비유하는 단어를 쓰도록 하고 개인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01



학생들이 만든 고교학점제 서클 맵

이러한 수업 과정을 5차시 안에 다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히 2차시와 5차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두 시간 이상이 필요했다. 간혹 외부업체들이 고교학점제 관련 수업을 하겠다며 두 시간짜리 강의안을 들고 오는데, 수업을 진행해 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수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차시 정도는 필요하다. 각자가 탐색하여 발표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8차시 이상을 계획하여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안

교육부는 2023년 6월,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공통 과목만 9등급제를 유지하고, 일반 선택·진로 선택·융합 선택 과목은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는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던 9등급제를 폐지하고, 전 학년의 전 교과에 5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으로, 모든 교과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했다. 수능에서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없애 버렸다.

이번 발표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가 과연 교실에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시험 점수에 따라 학생을 하나로 줄 세우는 상대평가가 계속되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듣고 싶은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방법은 교육 현장에서 아주 큰 힘을 지닌다. 어떤 형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공부법, 교사들의 교수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교육 시스템과 평가 체제를 혁신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고교학점제’가 우리의 교실에 잘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N**



02

DNA(Dream Now AI) 디지털 프로슈머 진로 여행

조두연

의정부 민락중학교 진로 교사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주도성 함양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 및 AI 융합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2023 의정부교육지원청 드림메이커학교를 이끌어 가며 2022~2023 교육부 인공지능(AI) 선도학교 및 2023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2~2023 경기도교육청 에듀테크 미래 교육 연구회 운영진에 참여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사례를 나누는 교육청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교육부 AEDAP 리더 교원 및 경기도교육청 2022개정 교육과정 연수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그리게 하자

오늘도 누군가 진로 상담실 문을 똑똑 두드린다. 상담실을 찾아온 아이와 날짜를 서로 맞춘 후 상담 예약을 한다. 여러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 있거나 하고 싶은 직업이 없어요”, “공부를 잘 못해서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등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화시켜 그려 보지 않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10대 중반의 중학생이라면 무엇이든 상상하고 꿈꿔 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커서, 진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작은 꿈이더라도 소중하게 품고 그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DNA(Dream Now AI) 프로젝트 방향과 수업 흐름

중학교 때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로 아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특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수록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진로 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밑바탕이자 핵심적인 요소이다.

- 가. 긍정적 자아 개념과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에 기초하여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을 기른다.
- 나. 직업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과 진취적 의식을 갖도록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역량을 기른다.
- 다. 중학교 이후의 교육 및 직업 정보를 파악하고, 관심 분야의 진로 경로를 탐색하는 역량을 기른다.
- 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목표에 따라,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기른다.

출처: 교육부, 2015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 목표

02

2015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진로와 직업』에서는 긍정적 자아 개념에 기초한 자아 이해 역량,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역량, 관심 분야의 진로 경로 탐색 역량, 진로 준비 및 설계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진로 역량을 길러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에듀테크와 AI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증대시키고자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진로 수업을 고안해 보았다.

단계	핵심 요소	수업 주제	활용 도구	공유
1	상상	① 아무튼 AI와 출근	캔바 - 인포그래픽	메타버스 전시회
		② 미래 인생 네 컷	웹툰 투닝	
2	여행	③ 관심 분야 직업 여행지 탐색	챗GPT	패들렛
		④ 진로 ON 여행	구글 어스	
3	질문	⑤ 관심 직업을 물어봐!	챗GPT, 브루트, 아숙업	북크리에이터
4	소개	⑥ 직업에 대해 알려 줘!	Pictory, viedo stew, AI Studio	패들렛
		⑦ 학과에서 뭘 배울까?	AI PPT(Gamma)	
		⑧ 너의 꿈을 말해 봐!	브루트 자기소개서 틀, Vview, 투닝 매직 AI, D-ID	
5	성찰	⑨ AI를 어떻게 써야 할까?	퀴즈앤	보드

프로젝트를 5단계로 구성하고 1단계 가벼운 상상에서 시작하여 5단계에서는 자신과 세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각각의 수업 주제에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1단계] 미래의 나의 꿈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일주일에 3.5일만 일해도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선비즈뉴스, 2023. 10. 4)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칼럼에서 챗GPT를 중심으로 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 “AI의 발전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의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이다. AI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모든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고 내다봤다.(디지털 투데이, 2023. 3. 22)

수업 주제	① 아무튼 AI와 출근
활동 과정	<p>[도입] ‘MBC 아무튼 출근’에서 관심 있는 직업인 영상 선택하여 시청하기</p> <p>[전개] 1. 캔바 사이트 → 인포그래픽 → 스타일 선택 2. 30대 중반에 AI와 함께하는 나의 하루 일과 상상 및 표현하기</p> <p>[정리] 완성된 인포그래픽 결과물을 과제로 제출 → 메타버스 전시하기</p>

AI 기술이 발전하는 변화 속에서 미래를 상상하며 20년 뒤 3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도록 했다. 미래 기술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그려 봄으로써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MBC 아무튼 출근



인포그래픽 학생 작품 1



인포그래픽 학생 작품 2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미래의 삶과 AI 기술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행복하게 상상하며 디자인을 했다. 활동을 통해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적은 학생들도 많았다.

02

수업 주제	② 미래 인생 네 컷
활동 과정	<p>[도입] 웹툰 제작 사이트 투닝을 활용한 예시 보기</p> <p>[전개] 투닝 사이트에서 미래에 성공한 나의 삶을 네 컷으로 제작하기</p> <p>[정리] 완성된 웹툰 결과물을 과제로 제출 → 메타버스 전시하기</p>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Tooning website. It features four panels of a webcomic. The top-left panel is titled '카이스트 27학번 입학' (Admission of KAIST 27th year) and depicts three students in graduation gowns. The top-right panel is titled '국가 과학기술 연구원이 되어, 협장포제-예집기 매표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Becoming 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 working hard to make the world better through bioprinting and 3D printing). The bottom-left panel is titled '교생진 외국인과 결혼하여 말, 물, 이물과 함께 에어여행을 다닌다' (Marries an international student, travels by air with words, water, and objects). The bottom-right panel is titled '어려움 대학교 보낸으나,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 (Spent university life at a difficult time, but wants to live my own life). Each panel contains Korean text describing the characters' goals and activities.

TOONING

웹툰을 제작하는 투닝 사이트 (<https://tooning.io>)에서 무료로 3개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투닝에서 제공하는 AI 기능(글로 이미지 생성, 문장으로 툰 생성, 사진으로 캐릭터 생성 등)을 활용하면 생성형 웹툰을 제작할 수 있다.

교사가 메뉴만 간단히 설명하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원하는 요소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클릭만으로 손쉽게 웹툰 제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아이들과 꼭 한번 해 보기를 권한다.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a spatial site. The left screenshot shows a virtual hallway with a red tree sculpture and a QR code labeled '메타버스 공간 바로가기' (Direct link to Metaverse space). The right screenshot shows a virtual room with several framed artworks and a QR code labeled '메타버스 공간 바로가기' (Direct link to Metaverse space).

아무튼 AI와 출근 전시장(Spatial 사이트)

AI 웹툰 작업 소개 전시회(Spatial 사이트)

메타버스 공간에서 친구들이 상상한 꿈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타인의 꿈을 보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2단계] 행복한 진로 ON 여행

수업 주제	③ 관심 분야 직업 여행지 탐색 → ④ 진로 ON 여행
활동 과정	<p>[도입] 꾸뻬씨의 행복 여행(예고편) 시청 후 행복한 미래 여행 상상하기</p> <p>[전개] 1. 챗GPT와 구글 어스로 진로와 관련한 세계 여행지 찾기 2. 구글 문서 및 북크리에이터에 자료 저장하기</p> <p>[정리] 찾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과제로 제출 → 구글 어스 사용법 예습하기</p>



패들렛 1 패들렛 2

[영화] 꾸뻬씨의 행복 여행

[도서] 꾸뻬씨의 행복 여행

구글 활동 탐색 1

세계 범람 순위
1위는 에이트 플레이

챗GPT 활용 탐색 2

구글 어스 패들렛 공유

구글 어스로 떠나는 진로 여행

북크리에이터 포트폴리오

다양한 직업 세계를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관심 분야의 진로와 연결된 세계의 유명한 장소를 탐방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이들은 글로벌한 입장에서 직업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점차 넓혀 가며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3단계] 챗GPT에게 물어봐!

관심 분야 진로 및 다양한 진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주로 사용 한다. 이때 기존 검색 사이트가 AI 챗봇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를 학생 스스로 작성 및 수정·보완하고, 이를 통해 얻은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직업 을 비교 분석하고자 했다.

수업 주제	⑤ 관심 직업을 물어봐!
활동 과정	[도입] 챗GPT 및 브레인 가입과 사용법 설명하기 [전개] 챗GPT와 브레인에게 관심 직업 정보 물어보고 Keep하기 [정리] 찾은 정보를 북크리에이터에 정리하기

영어강독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시나리오작가 및 영화제작자 등과 협의하여 제작스태프 및 배역을 결정한다. 제작진과 활동분장을 입사하고 세트디자인을 검토하고 활동계획을 세운다. 활동일정대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스태프의 업무를 조율·지휘하고, 활동현장 및 준비과정을 확인한다. 연기자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활동현장을 확인하여 재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영어 교육자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 현황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ly 출신, 취득 방법 등을 자세히마다 이를 수 있으므로, 내용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자격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중 하나로, 비영국인에게 영어로 기르는 교사를 위한 자격증입니다. TESOL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TEFL\(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브레인에게 물어봤어요

1차로 커리어넷과 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업 정보를 탐색하여 정리하게 한 후, 2차로 구글 검색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습득한다. 3차로 AI 챗봇인 챗GPT와 브레인 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궁금한 것들은 질문 방법의 다양한 탐색 과정을 통해 프롬프트를 반복 작성하고, 원하는 답변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질문하게 했다. 프롬프트 질문이 구체화될수록 답변 또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유용한 지도 TIP

1. 프롬프트 질문 방법 및 요령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해요. ‘○○직업에 대해 설명해 줘’보다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증을 알려 줘’ 등으로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2. 경험상 외국 사이트보다는 국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답변이 우리나라 상황이나 정서에 맞춰 답변해 줘서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4단계] 나의 꿈을 보여 줄게!

직업에 대해 탐색한 정보를 정리하여 나누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발전되면서 TTV(Text-to-Video) 기능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3분 안에 영상(비디오)을 쉽게 만들어 낸다. AI 체험을 통해 AI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AI 경험의 폭을 좀 더 넓혀 주고자 했다.

수업 주제	⑥ 직업에 대해 알려 줘!	
활동 과정	[도입] AI 사이트 사용법 익히기 [전개] 1. 원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직업 소개 텍스트 입력하기 2. AI가 제작해 준 영상에서 이미지, 텍스트 등 부분 수정하기 [정리] 완성된 AI 영상 작품은 패들렛에 분야별로 업로드하여 공유하기	
도구명	사이트	작품
Pictory	 https://pictory.ai/	
video stew	 https://videostew.com/?loc=ko	
AI Studio	 https://www.deepbrain.io/	

영상을 제작하는 다양한 AI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아이들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아했다. 또한 아이들은 AI가 주제나 내용에 맞춰 영상을 제작해 주는 기술에 놀라워 했다. AI가 인간의 일 영역에서 편리함과 유용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 주제	⑦ 학과에서 뭘 배울까?
활동 과정	<p>[도입] AI PPT 제작 사이트(감마 Gamma) 사용법 익히기 [전개] 1. 학과에 대한 정보 수집 사이트(커리어넷, 챗GPT 등) 활용하기 2. 수집한 정보 텍스트를 입력하여 PPT 자동 생성하기 [정리] 완성된 AI PPT 작품은 퀴즈앤 보드에 공유하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Gamma 제작</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학과 소개 작품</p> </div> </div>

AI 제너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주제만 입력해서 목차와 키워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PPT가 기본으로 여덟 장 이상 구성이 되어 일부분만 수정하면 완성도 높은 PPT를 제작하여 학과에 대한 소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업 주제	⑧ 너의 꿈을 말해 봐!		
활동 과정	<p>[도입] 꿈과 관련된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떠올리기 [전개] 1. 래퍼가 되어 랩으로 자신의 꿈 소개하기 2. 자신의 미래 이야기를 D-ID 속 아바타를 활용하여 꿈 소개하기 [정리] 아바타를 통한 꿈 이야기 공유하기</p>		
도구명	사이트	작품	후기
D-ID	https://www.d-id.com/ 		 <p>가상현실전문가 윤O하 36 작품 바로가기</p>

vrew  https://vrew.royagenx.com/ko/	 작품 바로가기	<p>3326 위치안</p> <p>진로 수업을 통하여 내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고 나를 앞으로 내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나에 대해 할구하고 더 알아가야겠다고 느꼈다</p>
---	--	--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프로슈머가 되어 표현하고,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말하는 아바타로 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다짐까지 해 보았다. 아이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AI를 통한 다양한 경험으로 미래 사회에 친밀감을 더하고 AI와 공존하는 가능성을 경험해봄으로써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N**

*조두연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 사례 및 연수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경기교사ON] 독서연계수업,
배움과 읽을 넘어 '성장'으로 가다(00:52~1:16)

youtube.com/live/50IYXebcf3E?si=cvBV2y_ELV2Vkf-fJ




[23년 알고보면 이렇게 쉬울 수 없다!!]
AI 활용수업 끌팁 대공개]

youtu.be/kLKKF8xgr7k?si=7BhRSOnaUN_Su5hl&t=41




[21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진로감수성을 키우는 하이브리드 수업자료 개발

youtu.be/KdFxqW6OIew?si=_PrBEc-7A9-rVRz2




[22년 진로수업 사례나눔 및
진로수업 워크북 드림서핑 활용 방법]

youtu.be/oOaNSYNJMii?si=ou7swoQZjjvNlVe-k



학생 성장을 위한 시작, 고교학점제와 진로 교육



임수웅

인천 삼산고등학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진학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교내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육과정 연계 진로 진학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과 ‘진로교육지원단’에서 활동 중이다. 관내 중·고등학교 및 도서지역 진로 진학 설명회 강의, 인천 청소년진로박람회와 대입 수시박람회 온·오프라인 진로 진학 상담, 진로 학업 설계 교육과정 박람회 컨설팅 등을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방 도시의 학교뿐 아니라 서울 및 대도시 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다는 뉴스는 이제 낯설지 않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2013년 190만 명을 넘었던 고등학생의 수는 2023년 현재 136만 명이며, 2034년에는 1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진적인 기술 진보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인구 급감, 정보의 디지털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등으로 교육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안에서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최소 학습 수준을 보장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미래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 방식과 체계가 필요했다.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교육 안에서 학생 개개인의 주체성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잠재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고교학점제이다.

1. 고교학점제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업·학사 운영 기준인 ‘단위’는 ‘학점’으로 변경되고, 총 이수 단위인 204단위는 총 이수 학점 192학점으로, 필수 이수 단위인 94단위는 필수 이수 학점 84학점으로 축소된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현재 24단위에서 18학점으로 줄어든다. 2023년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단계적 이행 단계로 학점제가 부분 도입되어, 단위가 아닌 ‘학점’이 적용되고 총 이수 학점이 고등학교 2~3학년과 달리 적용되고 있다.

기반 마련	운영체제 전환	제도의 단계적 적용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1	'22	'23	'24	'25-
수업량 기준	단위 (특성화고: 학점)	학점		학점
총 이수학점	1~3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연구·준비학교 비율	55.9%	84%	100% 100%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2023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

고교학점제는 2020년 도입 준비기를 시작으로 아래 표와 같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부터 학점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고, 일반계고 및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계고 기준 고교학점제 연구·준비 학교의 수는 2023년 약 1,700개 교에 이르러 전국 고등학교 수가 2,373개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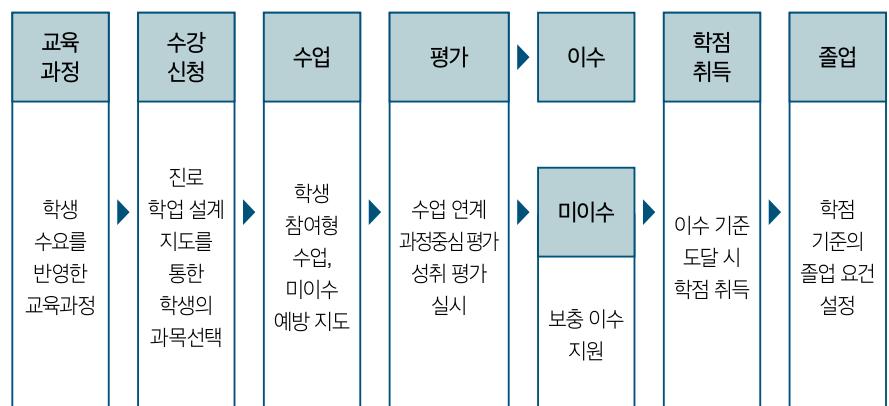
고교학점제에는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단위로 과목이 편성되었으나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 단위로 과목이 편성된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제로 운영되던 ‘국어’ 과목의 경우,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기에 공통국어1, 2학기에 공통국어2로 나누어 편성된다. 또한, 2022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교과의 기본 구조가 다음 표와 같이 개편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의 보통 교과 과목명은 다음과 같다.

교과(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국어	공통국어1,2	화법과 언어, 문학, 독서와 작문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1,2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II, 경제 수학, 인공 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기본수학1,2			
영어	공통영어1,2	영어 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1,2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1,2	세계시민과자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통합사회1,2			
과학	통합과학1,2	물리학, 화학, 생명 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수요 반영,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중점으로 한다. 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와 수강 신청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졸업 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체계화한다. 또한, 학생들이 과목의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한다.



학점제형 학사 제도 운영 체계(2023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한다. 이렇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도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한다.

2. 진로 교육과 고교학점제

진로 탐색기(14~24세)에 있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 자기 자신과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하면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에 학교는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과 경험, 점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명료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경험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 학력과 기초 소양을 위한 학습 경험도 포함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토대로 하여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학습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까지도 배우게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적성과 흥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진로 설계와 학업 설계

진로 교육 활동은 진로 검사를 통한 진단을 시작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거쳐 진로 결정 및 설계 순으로 운영된다. 중학교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을 기반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집중적인 진로 검사와 진로 탐색을 통해 잠정적인 진로 방향과 분야를 결정하고 설계하며 학업 계획까지 세울 수 있다.

① 진로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와 학업 설계 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가 모호한 채로 입학하여, 진로 결정 수준이 높지 않고 진로에 관심이 없거나 진로 탐색에 무기력한 학생도 많다. 이 시기부터 자신의 진로 방향을 그려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고교학점제 운영 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1학년 동안 집중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및 과목 설계를 위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진로 지도, 과목 선택 및 이수 설계, 진로 변경에 대해서 학생과 필수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한다. 진로 심리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 관심 분야와 관련된 진로와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과목 선택 시 대입 또는 취업 등 진로를 반영하여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진로 상담은 학생의 진로 성숙 수준에 따라 학업 연계형, 설계 지도형, 탐색 강화형, 동기 촉진형으로 구분하고 전반적인 심리 및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자립 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진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진로 성숙 수준		진로 지도 유형 및 지원 내용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 결정	유형	지원 내용
높음	높음	+ 높음	유형1 학업 연계형	진로 결정에 따라 실천·준비하고, 학업 설계·이행과의 연계를 집중 지원
		+ 낮음	유형2 설계 지도형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기반으로 진로 결정 및 설계를 집중 지원
높음	낮음	+ 낮음	유형3	진로 결정 이전에 자기 이해 또는 진로 탐색을 더 강화하도록 지원
낮음	높음	+ 낮음	탐색 강화형	
낮음	낮음	+ 높음	유형4 동기 촉진형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의 동기를 높이도록 집중 지원
		+ 낮음		
심리 및 생활의 어려움		+ →	유형5 자립 지원형	진로 지원 이전에 먼저 학생 심리와 학교 생활 자립을 우선 하도록 집중 지원

교육과정평가원 진로 지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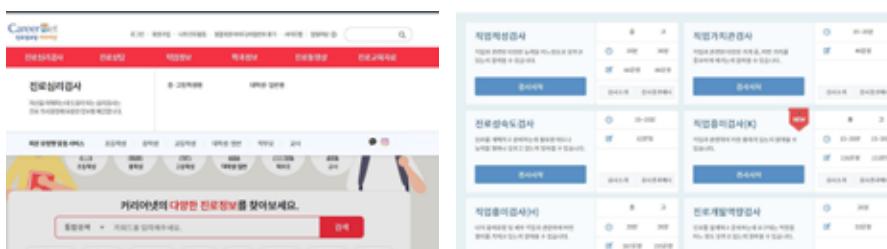
진로 교사, 담임 교사, 교과 교사와의 지속적인 진로 및 학업 상담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정보를 탐색한 후 학업과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상담 활동은 개인별 또는 집단별, 그리고 주체별로 다양화하여 학부모 진로 상담 캠프, 진로 미결정 학생 대상 집중 상담 프로그램, 진로 집중 상담 주간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② 진로 심리 검사 활용 방법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는 빠르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반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1학년 1학기 동안 진로 검사와 탐색 활동을 통해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 분야나 전공 계열과 같은 포괄적인 진로 분야를 설계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진로 및 학업 설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준비도 파악을 위해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등의 표준화 진로 심리 검사(직업 흥미 검사,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등)를 활용할 수 있다. 진단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성숙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 디자인 설계 지도를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에 대한 흥미나 적성을 알아보는 검사, 기타 학습 관련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진로 검사의 결과를 학업 설계와 연계하여 지도하면 학생의 과목 선택 시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진로 심리 검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학기별로 실시하여 학생의 성향 및 진로에 대한 변화 여부, 준비도 등을 체크해 보면 좋다. 커리어넷 진로 심리 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누적 관리 되기에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며 관심 분야와 관련된 직업과 학과 정보가 연계되어 제공되므로 추후 상담 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학과 및 직업 정보 탐색 방법을 쉽게 안내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page of the Korea Career Net website.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Home', 'Job Information', 'Job Search', 'Job Guidance', 'Job Interest', and 'Job Aptitude'. Below these, there are several search boxes and filters for 'Job Interest' and 'Job Aptitude'. One search result for 'Job Interest' is highlighted with a red arrow, showing details for 'Job Interest Test (K)' with a score of 2000 and a link to 'View Details'. Another search result for 'Job Aptitude' is also visible.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banner for 'Discover various career information through the Korea Career Net website' and a footer with links to 'Home', 'Job Information', 'Job Search', 'Job Guidance', 'Job Interest', 'Job Aptitude', and 'Help'.

커리어넷 진로 심리 검사

(2)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설계 지도

고교학점제 안내,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 활동은 진로와 직업 교양 과목, 일반 교과 수업 중 연계 활동과 학교 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함께 운영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진로와 직업 과목을 운영하고 여러 일반 교과에서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을 실시하여 과목에 대한 흥미와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을 실시하면 학교 생활 전반에서의 진로 탐색 지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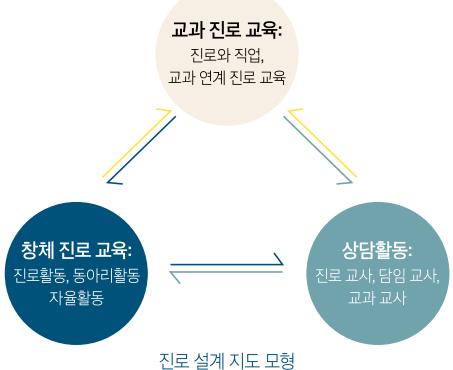
① 진로와 직업 교양 과목 운영으로 학생

의 자존감 향상 및 자기 이해, 진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어 진로 진단,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 및 학업 설계 활동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 관련 교과목, 직업 및 대학(학과) 적합성 검사 및 진단 검사 실시와 결과 활용 활동, 진로와 진학과 연계된 활동,

미래 직업 세계 이해 활동 등을 통해 진로 탐색과 설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의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관련 체험 활동 내용은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정규 수업 시간 확보를 통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진로 과목을 국가 교육과정의 필수로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

② 교과 연계 진로 교육 활동으로 모든 교과에서 수업 활동으로 진로 연계 교육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다. 교과 연계 수업을 통해 해당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진로 분야에서 활용되는 부분을 알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과 흥미를 끌어올려 학업 역량 강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기간 또는 수업량 유연화(적정화) 기간을 활용하여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③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은 진로 탐색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구조화되어 활용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상담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에 연계하여 진로에 대한 지식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 활동

학생의 흥미와 적성 분야 및 진로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진로 특강 및 멘토링, 직업인 멘토 특강, 현장 직업 체험, 대학 연계 학과(전공) 체험, 선후배 및 졸업생 멘토링 등의 교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진로 진학 센터나 진로 교육 센터, 교육청 및 기업 연계 진로 캠프 및 박람회 참여 등)하고 사후 프로그램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하게 하여 진로 목표를 점검하고 조정하며 체계적인 진로 탐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율(자치) 활동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분야의 주제 탐구 활동, 삶과 연계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 탐구 활동, 학급 및 학교 내 공동체 활동 등을 진행하여 학생의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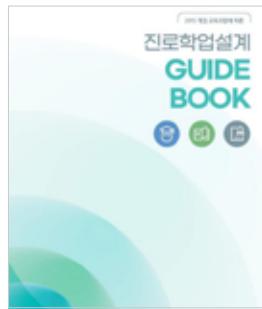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를 학생들 스스로 조직하고 활동하도록 하여 진로 성숙도를 높이고 진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전공 심화 특강, 실험 활동, 주제 탐구 활동, 체험 활동, 탐방 활동 등 각종 심화된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여 진로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3) 학업 설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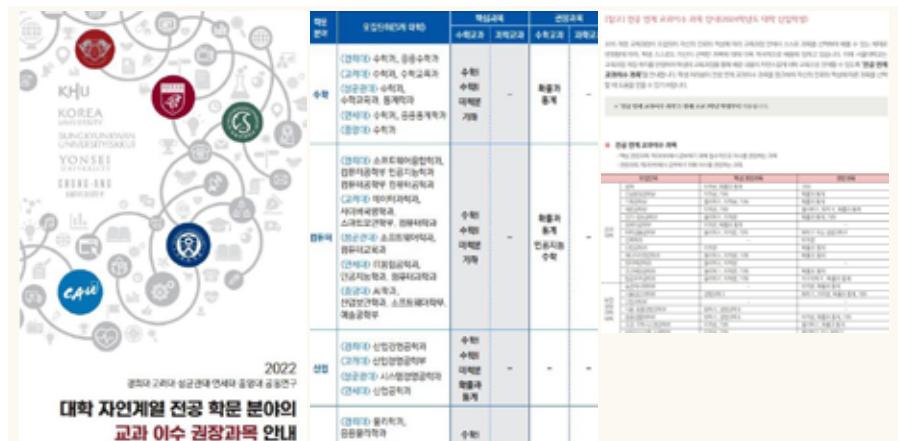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것 또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을 안내하고 상담하며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진로와 연계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적성, 학업 능력을 토대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 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학습에 책임을 느끼고 학업에 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교육과정 이수로 이어져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진로 결정 비율이 높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재촉하기보다는, 입학 시기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진로 탐색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데 일관적인 진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진로 설계, 학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진학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임 교사, 진로 전담 교사, 교과 교사, 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 학교 내 교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학교는 과목 선택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 결정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이수가 필요한 과목은 무엇인지 안내한다. 학생은 자신이 입학한 학년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토대로 3년간 선택 과목의 이수 계획을 세워 진로·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도받는다. 각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학생 개인의 진로 설계 및 학업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워크북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은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데 진로 방향과 연계된 과목 선택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라인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진로 선택 과목 안내서나 대학의 진로 선택과목 가이드북을 활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와 경희대 포함 5개 대학의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

과목 설계 지도 중에 학생의 성격과 과목 흥미가 일치하지 않거나 학생 자신의 진로 희망과 개인적 조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로 선택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직업적 대안이 존재함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이수 경로를 안내하고 학생의 진로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탄력적 과목 이수 설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진로를 변경할 경우 진로 상담을 통해 진로 변경에 대한 의사와 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선택 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안내하고 다시 학업 설계를 지도해야 한다.

(4)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입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평가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은 대입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없다. 객관식 문제 풀이 방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교육의 목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과정 평가원은 학교 내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수능의 평가는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가 낮음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진로 전환기의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에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학교에서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가 학업 설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말 진로 전환기 진로 탐색 과정 및 고등학교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등학교 배정 이후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고등학교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교사와 지속적인 진로 컨설팅을 통해 진로 로드맵을 작성하며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체계에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교과 교사는 다과목 수업과 평가, 그로 인한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으며, 담임 교사는 생활지도, 진로 지도, 과목 이수 지도까지 지도의 범위가 늘어났다. 하지만 학교 내 교사의 수는 줄어들어 주당 수업 시수가 늘고 학생 선택권 확대로 다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별 학생의 성장을 돋고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감소, 교사의 연구 시간 확보와 행정 업무 감소, 개설된 과목과 수업 학급의 수를 고려한 교원 수급 정책, 교사 전체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앞으로의 교육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와 연구 학교 운영을 통해 앞서 언급한 어려움을 학교의 관리자, 교육청,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은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교과 순회 전담 교사, 학교 공간 혁신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그 길이 멀다고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 10년 후 학생 수는 지금의 절반이다. 게다가 교육의 지향점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식 교육이 아니라 개별화된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교수 학습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 또한 달라졌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앞으로 10년 내 교육계가 현재의 시스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교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학생의 진로 방향, 학습 능력과 성향, 적성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획일적 과목과 평준화된 수업, 문제 풀이식 교육과 줄 세우기식 교육만으로 학교 교육을 채울 수 없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육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고교학점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정책으로, 학생을 자신의 진로와 특성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을 갖춘 개별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정책에는 늘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정책이 ‘미래 교육의 완벽한 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변화된 사회에 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 주체성 함양과 성장,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교학점제를 받아들이고, 이 연구적 태도로써 고교학점제를 수정 보완하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N**

*참고 자료: 고교학점제 사이트,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교육부, 2023)



고교학점제로 학교에서 달라질 것들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돋는 포용적 고교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인재상과 교육 체제를 모색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을 담보하는 학교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이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멘토 담임제 등 학급 운영의 변화를 가져왔다. 고교학점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역량을 키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실의 모습, 고교학점제에 대한 궁금증을 교육부의 발표를 토대로 살펴본다.

Q.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 과목 이수 후에 진로·적성에 따라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학생은 획일적인 시간표에 따르지 않고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 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학교의 변화

	고거의 학교	고교학점제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중심 획일적 교육과정 대학 진학 중심(일반계고) 학급별 시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학, 취업, 예체능 등 진로 존중 학생 개인별 시간표
학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 학업 참여 동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 + 학점 취득해야 졸업 학업 이행 책무성 부여
교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학교 교사의 수업 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 수강 학교 밖 전문가 수업 참여
학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학급 중심의 생활 일반교실 중심의 획일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 과목 중심의 이동 수업 학습·지원·공용공간 등 다변화
고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다양화가 서열화 초래 학교별 분절적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

출처: 교육부

Q.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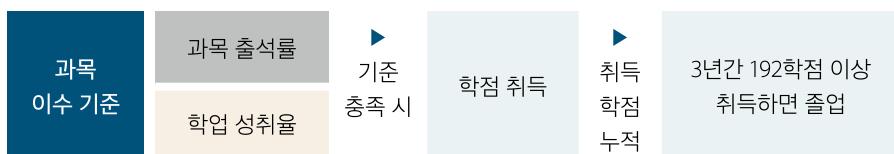
고교학점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도 부분을 도입하고,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된다.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에 이어 일반계고 및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학점을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 취득을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고, 방학 중 계절 수업 운영 등을 통해 유연한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고교 단계의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유지하고, 학생별 상황에 따라 기본 과목을 공통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도록 허용한다.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점 취득 방식



Q. 고교학점제의 학년별 모습과 평가 방법은?

2023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중학생의 안정적인 학교급 전환 및 고교 생활 준비를 위해 중학교 3학년 2학기 말에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학교 단계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교과 수업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과목 선택 연습, 희망 진로 구체화 등의 학업 설계를 지원한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진로 집중 학기로, 공통 과목과 연계한 진로 탐색, 개인별 학업 계획서 작성 등 진로 및 학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기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목 이수 기준과 학년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년별 변화

구분	과거의 학교	고교학점제에서의 학교
진로 학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1) 일반적 진로 활동 (고2) 성적 중심 진로·진학 준비 (고3) 성적별 진학 결정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1) 진로·적성 탐색 ▶ 진로·학업 설계 ▶ 수강 신청 ※ 고1 진로 집중 학기 운영 (고2) 진로·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수강 ▶ 진로 구체화 (고3) 진로 기반 진학 준비, 졸업 이후 설계
과목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과학 및 제2외국어 교과(군) 내에서 일부 선택 편성 주요 기준: 대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출제 과목 중심 - 인문·자연 계열별 정해진 과목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 선택 편성 주요 기준: 학생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과목 수요조사 및 수강신청 결과 - 학생·교사가 협업하여 과목을 설계
수업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180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과목당 5단위 내외 이수 - 1단위: 17회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24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 주당 평균 4시간(학기당 4단위)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174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점: 16회 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체험 활동 18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288시간)
졸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별 별도 이수 기준 없음 각 학년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 시 학교 졸업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별 이수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 기준: 과목 출석률 2/3이상+학업 성취율 40% <p style="text-align: center;"> 이수 기준 총족 ▶ 학점 취득 </p> <p style="text-align: center;"> 이수 기준 미총족 ▶ 보충 지도를 통한 학점 취득 또는 대체 이수 ▶ 공통 영어수학에 한하여 기본영어·수학 대체 이수 허용 </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상 학년 진급 요건은 현행 유지(각 학년 수업 일수의 2/3이상 출석하면 진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평가 실시(석차 등급 산출)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취 평가제 확대(모든 선택 과목 및 공통 과목 중 한 국사, 과학탐구실험 석차 등급 미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성취 수준에 따른 절대 평가 - 성취도별 맞춤형 수업 및 피드백 제공

수업 장소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실, 오프라인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재적 중인 학교로 등교 (교사) 재직 학교 학생 지도 (수업 자료) 서책 교과서 중심 학급별 동일 시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당 34시간 3년간 대부분 학교 내, 학급별 교실에서 생활 학생 거점 공간: 학급별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 온라인으로 수업 장소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인근 학교,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부 수업 (교사) 필요 시 타학교 학생도 포함하여 지도 (수업 자료) 지역사회, 온라인 등 다양한 학교 안팎 자원 활용 학생 개인별 시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당 32시간 학생 개인별 시간표에 따른 일과 중 공강 시간 운영 인근 학교 및 지역 사회 기관,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한 선택 과목 수강 가능 홈베이스, 도서관 등 교실 경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스터디룸, 카페형 학습 공간 등 조성 도서관을 복합 공간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단일 자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 대비 강의식 수업 중심 행정 학급별 담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 역할: 행정 학급 운영 교무·생활지도 중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업무 중심 부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 및 선택 과목 지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수업 전문가로서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및 교과 연계 진로 활동 강화 학생 소그룹별 담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 역할: 학생별 상담 강화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학업 설계 지원 중심 업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및 진로·학업 설계 지원 중심 학교 업무 재구조화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1학년 상담</th> <th style="width: 50%;">2~3학년 상담</th> </tr> </thead> <tbody> <tr> <td>수강 신청 3개년 진로·학업 설계</td> <td>진로·학업 설계 점검, 변경 교육과정 이수 과정 관리</td> </tr> </tbody> </table>	1학년 상담	2~3학년 상담	수강 신청 3개년 진로·학업 설계
1학년 상담	2~3학년 상담				
수강 신청 3개년 진로·학업 설계	진로·학업 설계 점검, 변경 교육과정 이수 과정 관리				

출처: 교육부

초·중학교와의 연계, 해외 사례, 대입 등 학년제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상 학년제 규정은 유지된다. 평가 제도는 서열화가 아닌 성취 평가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202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현행 석차 등급제를 유지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 평가제를 적용한다.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제를 유지한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는 성취 평가제 안내 자료 개정과 교사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학생 평가 담보를 위해 시도 단위에서는 학교별 평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등 성취 평가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Q.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사 역할의 변화는?

교육부는 진로와 연계한 학업 설계 및 이수 지도를 위해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을 재구조화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법령상 진로 교육에 ‘학업 설계 및 이수 지도’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을 통해 교사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한다. 10~15명 내외의 학생 그룹별로 담임 교사를 두어 학습 관리·진로 및 학업상담·생활지도 등을 실시하는 소인수 멘토 담임제를 운영한다. 소인수 멘토 담임제에서 교사는 학급별 시간표 운영이 아닌 학생 개인별 시간표 운영, 공통 과목 중심이 아닌 선택 과목 중심으로 지도한다.

교사 역할 변화 방향

- (담임) 출결 관리·생활지도 등 학급 운영 ▶ 소수 학생 담당, 학업 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 (교과 교사) 단수 자격 활용 교과 수업 ▶ 복수 자격 활용 다과목 지도(학생 수요 반영)
- (진로 전담 교사) 일반적 진로 교육 ▶ 진로·진학 연계하여 학생 학업 설계·이수 지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제도로 인한 과목 선택 왜곡, 절대 평가로 인한 내신 변별력 약화, 개별 학생 관리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 지원 개선, 성취 평가제 신뢰도 확보, 대입 연계 강화이다. 먼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구축하고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 센터 설치를 통해 단위 학교를 상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취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평가 관리 센터를 설치,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로 운영하면서 대학에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대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미국	핀란드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필수 교과	5~7개	13개	9개	10개	8개	3개
개설 강좌	200~400개	200개	40개	40개	150개	70개
교육과정 운영	무학년 학점제	무학년 학점제	학년제	학년제	학년제 학점제	무학년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졸업 요건	학점이수 졸업시험	학점이수 졸업시험	졸업시험	졸업시험	학점이수 졸업시험	졸업시험 (GCEA)
대입	SAT 고교내신	고교내신 졸업시험 대학별시험	고교내신 졸업시험	고교내신 졸업시험	고교내신 졸업시험	고교내신 졸업시험



미국

무학년제 교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세부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 개인의 진로와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 및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학교 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개인 시간표를 작성하고, 졸업 이수 학점 및 대학 입시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과목을 정한다. 학점 이수와 졸업 시험이 졸업의 조건이다.



핀란드

1년 과정이 5~6개 학기로 구성, 1학기에 5~6 코스를 수강한다. 교과목에 따라 단원 및 위계를 고려하여 14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 3년간의 학습 계획을 작성한 후 과목을 선택한다. 학생들은 매학기마다 학습 계획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학습 계획에 반영하는데, 학생의 과목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업 상담 지도 교사가 학교에 상주 한다. 핀란드 또한 학점 이수와 졸업 시험이 졸업의 조건이다.



프랑스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바칼로레아 과정으로 운영된다. 고등학교 2학년은 Bac(바칼로레아: 고교졸업시험)의 방향성을 잡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1학년과 졸업반에서는 Bac 또는 기술자격증 중 본인의 방향에 따라 다른 시간표를 짜서 단계별로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동안 공통 필수 과목을 듣고,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1학년 말에 자신의 계열을 정하고 그에 따라 바칼로레아의 전공 영역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고2부터는 교육과정이 개별화되고 어떤 Bac 시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강 과목 및 주당 시수 등이 달라진다. 프랑스에서는 논술 시험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가 절대평가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성취도에 따라 월반과 유급이 결정되어 최소한의 학력 기준에 도달해야 자격증을 받고 졸업할 수 있다.



영국

학년제이며, 학생이 학교에서 학년별로 제공하는 교과목 중 취사 선택하여 시간표를 구성한다. 이때 자신의 진로와 중등학교자격시험(GCSE) 과목, 대입을 위한 과목 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한다. 필수 과목은 있지만 졸업에 필요한 이수 단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학생들은 GCSE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요구하는 시험 과목 수준과 이수 단위를 고려하여 과목의 이수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학년 간 진급에서 특별한 제한은 없고, 유급이나 월반도 없다. 학교 내 평가는 기본적으로 서술형 평가이며, 성취 수준에 따른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다. 11학년을 다 마치고 나면 GCSE를 치르고, 이를 통과해야 학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과목별로 8등급(절대평가)으로 표시된 이 증명서를 대학 입시나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



캐나다

주별로 교육과정이 다른 캐나다의 경우는 연간 수업 일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이 매우 높다. 학교에서는 주 지침과 교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나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계획에 따라 다른 계열의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성적은 시험뿐 아니라 평소의 수업 참여도 등으로 결정되며 절대평가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졸업 자격 요건을 갖추고 10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캐나다에는 표준화된 입학 시험이나 대학별 고사가 없기 때문에 고교 내신 성적과 졸업 시험 성적으로 대학 입학이 결정된다. **N**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의 지난 이야기

-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 대정고등학교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일부 학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되어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연구·선도·준비학교로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해 왔던 네 곳의 학교 운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전면 도입에 따른 각 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 정책 안착을 위한 모색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기발한 교과 융합 PBL 운영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자료 제공 및 원고 검토]
김소라(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국어 교사)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스스로 배우고 행복하게 꿈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참된 인재(IDEA)’를 비전으로 하여 2023년 고교학점제 도입 4년 차를 맞이한 학교이다. 벌써 4년째 고교학점제를 운영해 온 만큼 공동 교육과정의 거점학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 교과 융합 수업도 40개나 개설되어 있는 등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전 우수한 운영 사례로 참고할 만한 학교이다.

2023년 5월 25일, 전주중앙여고에서는 ‘기발한 탐탐-선택 과목 박람회’를 개최했다. 고교학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 담당 교사와 2, 3학년 멘토 학생들이 담당 교과의 특성과 계열별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안내해 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박람회가 마무리된 후 학생들에게 박람회의 유용성에 관한 설문도 진행했다. 학생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선택 과목과 선택 방향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과 고민 상담이 좋았으며, 이런 고민 상담을 위해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박람회의 결과로 나타났다.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나눠 볼 수 있는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던 전주중앙여고의 사례를 소개한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습 관리 체계화

전주중앙여고는 학생의 능동적인 과목 선택을 돋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소수 선택 과목을 정규 시간 내에 운영하고,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다양화했다. 또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를 지원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준비학교를 운영했다. 준비학교란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어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체 계획을 평가하여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주중앙여고의 준비학교 운영 단계]

1. 준비 단계

- 교육과정 편성 규정 마련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규칙 등 내부 규정 정비
- 교육과정 이수 지원팀 구성 운영

2.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생 진로를 고려한 선택 과목 개설 및 다양한 교육과정 안내
- 학생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목 편성 운영
-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강 시간 활용 방안 마련

3. 진로 및 학업 설계지도

- 학생 진로 및 학업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 진로 및 학업 상담 내실화
- 진로, 학업 설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4.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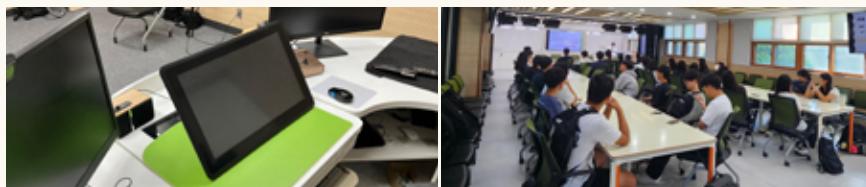
-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강화 및 학생부 기재
- 성취 평가 내실화를 통한 평가 신뢰성 제고
- 학생 맞춤형 책임지도 강화(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 학생 진로, 학업 수요를 반영한 수업 설계
- 온라인 활용 수업 활성화

5.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 교사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
- 협력적 문화 형성
- 학생 자율, 책임 문화 구축

공동 교육과정 거점 학교 운영

전주중앙여고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거점 학교이기도 하다. 2023년에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4개 과목을 운영했다. 과목은 고급 생명과학, 실용 경제, 전공 기초 프랑스어, 교육학이다. 이 공동 교육과정 수업을 위해 2개의 온라인 스튜디오도 구비했다.



온라인 스튜디오 및 공동 교육과정 OT

진로 융합 프로그램 ‘학교 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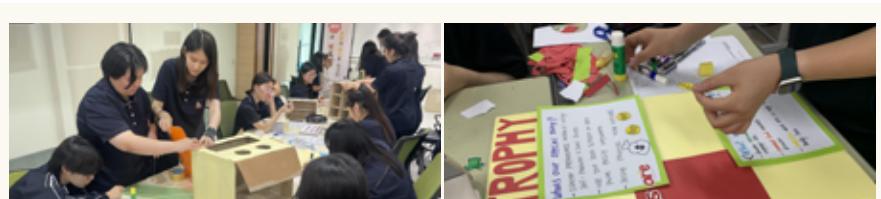
전주중앙여고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탐색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외전’은 수업 중 접한 내용을 학교 밖 전문가 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심화시키며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립과학관, LG디스커버리랩, 서울시청사, 서울대학교를 탐방하며 직접 체험하고, 담당 교과 교사와 함께 다양한 주제 탐구 활동을 진행하여 학기말에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학교 밖 전문가 집단과 활동하는 ‘학교 외전’ 프로그램

자율적 교육과정과 PBL 운영

전주중앙여고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것은 ‘프로젝트형 교과 융합 수업(PBL)’이다. 프로젝트형 교과 융합 수업 40여 개를 개설하고 ‘전 교과, 전 교사 참여’를 원칙으로 ‘교과 연계-확장-심화’의 융합 수업을 실현하고자 했다. 단순히 교내 수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 학습 내용과 실제 삶을 연결시켜 학생들이 배움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리·수학·화학 융합 교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수업

통합사회·영어 융합 교과의 글로벌 창업 수업



통합사회·미술 융합 교과의 인권 보장 디지털 아트 수업

여행자리·고전과 윤리·직업 윤리 융합 교과의 행복한 삶 수업

[PBL 수업 후 학생 후기]

2학년 김OO: 수행평가를 하면서 진로와 교과를 연관시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는 했는데, 융합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

1학년 최OO: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3학년 홍OO: 말 그대로 기발했다.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PPT를 만들어 발표하니 모든 것이 머릿 속에 남는 느낌이었다. 다른 모둠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듣는 것은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됐다.

향후 계획

전주중앙여고는 4년간 고교학점제를 운영해 오며 우수한 운영 사례로 그 실효성을 증명했다. 나아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을 되짚어 보며 향후 추진 계획도 세웠다. 계획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2022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개정 교육과정 대비 추진 계획]

1. 2022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 과목별 이수 학점 조정 및 단위·학점 통일
-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한 협력적 문화 구축
(예비 고1 학부모를 위한 고교학점제 설명회, 교사 대상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연수)
- 다과목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지원(환경, 진로와 직업 등 다과목 연수를 통한 전문 역량 함양)
- 학점 이수 미충족자 대상 지도 계획 수립

2. 미래 사회 대비 위한 역량 강화

-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증진 및 미래 사회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체계 구축
-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적 개선
(교과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실시)



국어과 ‘융합 교과 수업에서의 평가 계획과 진행 방법’ 회의

사회과 ‘아이패드를 활용한 교수·학습’ 회의



'1인 1 교육과정' 목표의 수업 개설 대정고등학교

[자료 제공 및 원고 검토]
강희진(대정고등학교 국어 교사)

대정고등학교는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전체 학생 수 300명 남짓의 소규모 인원 학교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똑똑하게 활용했다. 300여 명 학생 각각에게 1인 1 교육과정, 즉 개개인에게 적합한 300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로 자리매김했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대정고는 2023년 기준 1학년 128명, 2학년 86명, 3학년 94명, 특수학급 3명으로 총 학생 수가 308명 남짓한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이다. 학교 규모는 작지만 교육과정과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느 중심지 학교에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다.

연구학교로 시작, 선도학교 및 준비학교 운영

대정고는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했다. 2차년도부터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이수 모형을 적용하고 학점제 기반을 구축했다. 3차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교육 여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부터는 선도학교 및 준비학교로서 꾸준히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정보 교과의 다양한 선택 수업 운영



소인수 학생 대상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바리스타 수업



진학 상담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1인 1 교육과정

대정고는 1인 1 교육과정을 모토로 철저히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2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전까지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편성 전 미리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연수와 작성 검사를 통해 충분한 고민을 한 뒤 선택 과목을 골라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논리학, 철학, 바리스타 등 94개 과목 수업을 개설하였고, 덕분에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다. 제주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주도의 다른 거점학교에서도 고급 물리학, 심리학 등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의 폭은 넓다.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2023년에는 준비학교를 운영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구안한 ‘농어촌 소규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을 적용하고 개선하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 및 인프라 활용 등을 통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2월부터 3월까지 계획 및 준비 단계를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정을 실행했다. 준비학교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문화 혁신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 및 준비 (2~3월)	•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 • 1, 2학년 교과 담임 멘토제 구성 • 성취 평가 내실화
-------------------	--

실행 (3~12월)	• 선택 과목 안내 • 선택 과목 수요 조사 실시 및 수강 신청 대상 과목 확정 • 진로 및 학업 상담 내실화 • 학업 설계 지도 강화 • 선택 과목 수업 개선
---------------	---

- 온라인 활용 수업 활성화
-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 및 학생부 기재
- 학생 맞춤형 책임지도 강화(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2) 학교 문화 혁신

- 교사 역할 변화(다과목 지도 역량 제고, 담임 역할 변화, 진로 전담 교사 활용 등)
- 협력적 문화 형성(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합의)
- 온라인 활용 학교 운영
 -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결강 수업에 대한 보강 등에 온라인 활용
 - 플랫폼을 통한 교내외 수업 나눔, 교사 회의 등 효율적 학교 운영 모색

향후 계획

대정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한편,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까지 고려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수업과 평가의 품질 관리를 통한 수업-평가-기록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학기말 자율적 교육과정 주간을 활용하여 교과 간의 융합 수업을 학생 선택형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에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앞으로 4년 동안 제주 학생 중심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육과정의 지역화 모델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처럼 대정고는 끊임없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학생 맞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육 철학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실현’이다. 고교학점제는 그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다. 학생 각각의 적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상업고등학교의 특성상 대학 진학 외에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이 대다수이다. 학생의 주체적인 진로 결정을 도울 맞춤형 취업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준비반의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 인재 공무원 준비반을 운영하여 2022년 누적 기준 지역인재 공무원 20명을 배출했다. 공기업·대기업 공채반에 도전하는 NCS 기반의 수업을 운영하고, 부사관 준비반에서는 부사관 체력 인증 및 지적 능력 평가를 집중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지역 채용 준비반에서는 채용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활발한 창업 동아리 활동

청주여상은 다양한 창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길러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업 동아리 ‘아랫목’은 학생들이 직접 목공을 배워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손수레를 만든 사례로 KBS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청주여상의 또 다른 창업 동아리 ‘이로워’는 환경부에서 주최한 환경 지구본 공모전의 최우수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창업 동아리 ‘아랫목’의 활동



창업 동아리 ‘이로워’의 활동

2022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선정

2022년 1학기에 진행한 마케팅과 광고(홍보) 수업이 2022년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여 이루어진 수업이었다. 공동 교육과정으로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수업을 들으며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은 4C(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를 기르는 데 매우 적합했다. 단일 학교 내 교육 활동보다 유연한 수업 전개가 가능하므로 실제 사회에서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케팅과 광고(홍보) 수업에 참여한 학교는 청주여상을 포함하여 금천고, 상당고 등 7개 학교로, 총 1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 수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공동 교육과정의 우수 사례 '마케팅과 광고(홍보)' 수업의 특징]

실생활을 반영한 자료로 재미와 흥미가 가득한 수업

-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 홍보 자료들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해 흥미를 높인다.
- 마케팅/광고(홍보)가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언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 파악이 용이하다.
-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목표를 위해 생각을 나누고 수렴하며 협동하는 학생들



생각 나누기

- 배운 지식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지를 교차로 확인할 수 있다.
- '광고(홍보)'와 '마케팅'이라는 특성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소비자가 만나면 다양한 의미가 생성되므로 이에 대해 해석하며 생각을 넓히는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 마케터가 의도한 바대로 전략이 기능하는지를 논의하고 광고의 숨은 의미에 대해 토론하며 메타인지 사고 활성화가 가능하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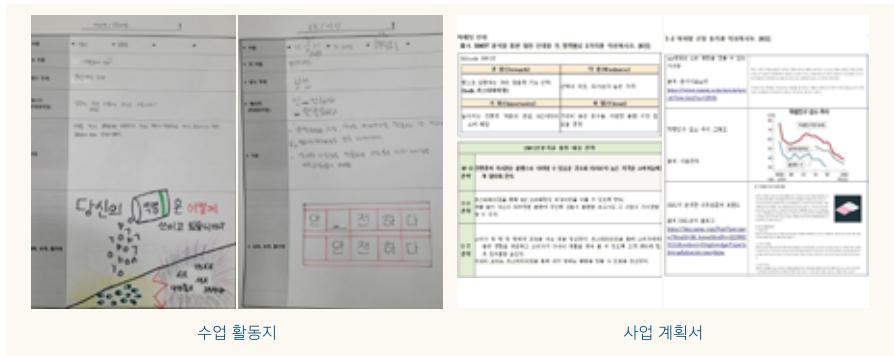
- 광고(홍보)에 내포된 메시지를 나름대로 파악해 논리성과 타당성을 갖춰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
-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소신있게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경험을 가진다.

지식 중심이 아닌 전략과 행동 중심의 수업



사업 아이템 발표

- 지식 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배운 지식과 전략을 활용해 발표하는 경험을 기른다.
- 행동 중심의 수업으로 배운 것을 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교사들은 공동 교육과정 수업으로 교육관에 확신이 생겼다. 학교 간 학생들의 희망 교과목 학점 이수를 위한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적극 실현시켜야 한다고 느꼈다. 또 수업 기술의 확장을 경험했다. 프로젝트 수업 및 하브루타 수업, 발표 수업을 접목하여 확장된 수업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진정한 배움의 경험이 가능했다고 한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공모전 등에 제출까지 함으로써 이론 학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실제로 활용해 보고 실생활에 응용해 보는 실질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더불어 대학 입시 및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향후 계획

청주여상은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할 것이다. 딱딱한 이론 학습을 지양하고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 기회 및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찾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주여상 진로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생 스스로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지원팀 주축의 산학협력 인천 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자료 제공 및 원고 검토]
정재호(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영어 교사)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의 기본 교육 방향은 ‘바른 인성을 갖춘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이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성장 경로별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특징과도 부합한다.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서 맞춤형 성장 경로에 따른 산학 협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성장에 중점을 두어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및 산학 협력 체제 구축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을 ‘진로 지도, 생활 지도, 학교 조직, 시설 공간, 이해도 제고’라는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계획했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계획]

진로 지도	생활 지도	학교 조직	시설 공간	이해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업 계획서 작성 • 진로 탐색 프로그램 • 진로 지도 전문 교원 양성 • 진로 상담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 • 업무 분장 재구조화 • 학교 구성원 역할 재정립 • 교원 수급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교실제 적용 • 학교 공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이해도 제고 • 학부모 이해도 제고 • 교원 연수

맞춤형 성장 경로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학과를 크게 전자제어과, 전자회로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전자과 총 4개 학과로 나누어 각각의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을 하기도 하고, 대학과 연계한 ‘선 취업-후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대학(동덕여자대학교) 연계 MOU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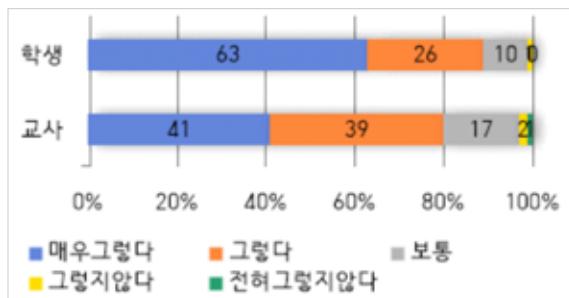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고교학점제 이해와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및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연수]

주제	내용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계고 학점제의 방향 및 이해 학점제 도입 시 변화될 교사들의 역할 マイ스터고 학점제 운영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경로별 방과후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교과 순환·선택형 교육과정 - 보통 교과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 - 수강 신청 방법
산업체 동향 및 직무유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체 동향 및 직무유형 분석
NCS 교육과정 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S 실무교과 운영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경로별 영마이스터 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상담 및 적성 검사 - 학생 성장 경로 상담 및 결정 - 영 마이스터 계획서 작성 방법
계절학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경로별 방과후 선택형 교육과정 미이수 학생 계절학기 운영
성장 경로 모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경로 선택 및 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장 경로 최종 결정 - 성장 경로 모형 결정 우선 순위 기준
マイ스터고 학점제 선택형 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경로별 선택형 정규 교육과정 운영 계획
マイ스터고 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수요 맞춤형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및 학과 개편



2021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향후 선택 교육 과정의 확대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해결 방안은 과제로 남았지만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 선택권의 확대 등의 이유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

향후 계획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현재의 성장 경로에 한 개의 성장 경로를 더 추가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교육과정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전공과 신산업 및 신기술 지식을 습득하여 학생들에게 또 다른 성장 경로 제공
- 다양한 수준별·경로별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필요한 마이스터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설계 과정인 이론과 반도체 설계 툴 기본 교육(2학년 과정) 및 심화 과정으로 실제 반도체 설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마이크로 교육과정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할 준비가 된' 실무형 인재 양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N](#)

2023년 4분기 교육 분야 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수능 결과를 고려하여 대입 및 진로를 설계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몇 법안을 발표하고 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01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1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눈여겨볼 점은 지원자 중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학력 인정자의 비율이 35.3%로, 1996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 10명 중 3명꼴이 N수생인 셈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 출제 방향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2

「학교 폭력 예방법」 일부 개정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0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선생님은 교육 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소송 까지 법률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지원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존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4

다문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 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한편,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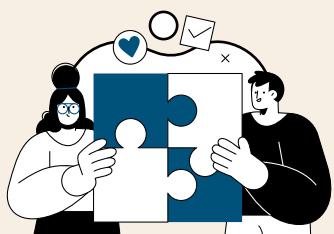
교육부,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발표

2023년 기준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네 가지 이슈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① 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 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융합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더 심화된 내용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수업에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어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02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② 고교 내신 5등급제

내신 평가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내신은 모든 선택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A~E 성취도평가)를 시행합니다. 다만,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 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03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③

교사 평가 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합니다.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예정입니다.



04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④

수능 출제 자격 기준 강화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수능 출제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 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하점이 없도록 보강하고, 출제가 끝난 후에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는 일절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담임 교사가 되기 위한 습관

_지치지 않는 힘

2023년 한 해 동안 본지를 통해 세 번에 걸쳐 필자가 학급경영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신규 교사 시절에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 필자 또한 여전히 매일 어려움에 직면한다. 필자가 학급경영 관련 책을 집필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력이다.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에 더 힘들 수 있다. 힘든 일은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마법 같은 전략은 없다!’ 끊임없이 매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급경영의 원칙과 방법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학급경영을 위해 가장 먼저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토대로 학급경영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 나가야 한다. 교사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흔들림이 없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과 생활하기 위해서 교사가 지쳐서는 안 된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전략,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도 필수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치지 않는 담임 교사, 나아가 행복한 담임 교사가 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최 선경

북동중학교 영어 교사이다.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Go!), 래(Future), 학교(School)’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래학교’의 교장이다. 프로젝트 수업, 체인지메이커 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며, 교사가 먼저 체인지메이커가 된 후 학생을 체인지메이커로 가르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고래학교를 운영 중이다. 저서로는 『중등학급경영_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 『어서 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주도성』 등이 있다.



[1]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_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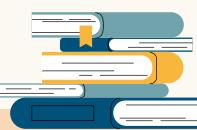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부러움을 살 만큼 행복하다고 느끼는 교사는 드물다. 나는 지난 십여 년 간 다양한 교사 연수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직접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교사들을 만났다. 무력감과 권태감에 빠진 교사들이 의외로 많았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교사도 더러 있었다. 그런 상태가 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었다.



특히 신규 교사나 복직 교사에게 좌절과 분노는 피하기 힘든 감정이다. 물론, 경력이 많은 교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필자 또한 신규 교사 시절을 겪었고 2년간의 육아 휴직 이후 복직한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 그들의 상황과 심정에 공감한다. 교육학 책에서 배운 이론과 너무도 다른 학교 현실 앞에서 교사들은 깊은 상처를 입고 좌절한다.

교사로서 행복하지 못한 까닭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담임을 맡으면서 겪는 좌절이나 스트레스가 그 이유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학급경영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정서적·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배움의 영역이다. 더불어 아이들의 개인적·집단적·발달 단계적 특성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불손한 태도나 반항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교직 적성을 의심하거나 학생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교사도 꽤 있을 것이다. 이런 좌절을 넘어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 스스로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학급경영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하는 활동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이 이 활동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시작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책 읽기와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장일기’와 ‘오늘의 한 줄’을 쓰게 한다. 좋은 자극, 긍정 메시지에 노출된 만큼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학급경영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길러 주어야 할 것은 자기 주도 능력이다. 학급경영에서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반과 비교하지 말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활동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활동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아이들과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너무나 바쁘다. 당장 눈앞에 있는 업무와 수업을 처리하다 보면, 교사는 정작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학급 아이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다. 그러면 학급경영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왜 이렇게 힘겨운지를 스스로 살피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사인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학생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무의미한 하루를 반복하는 일을 멈추고,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학급 안에서 생활하는 자신과 학생의 모습, 그리고 학급의 상황을 깊이 살펴야 한다.

담임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꼽으라면 ‘여유’와 ‘믿음’이다. 학생들이 고경력 선생님과 저경력 선생님을 구분하는 것대 중 하나도 바로 ‘여유’이다. 여유는 아이들이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다만 교사의 가치관과 다가가는 방식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믿음’은 ‘담임 교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는 성찰 속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나는 평소 담임 교사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가?’ 이런 질문은 평소 인간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담임 교사’로서의 나도 결국 ‘나’이기 때문이다. 담임 교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은 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담임 교사는 반 학생들과 매일 만날뿐더러 수업과 달리 조회와 종례, 상담 시간은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기에 교사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존재 자체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으로서의 나를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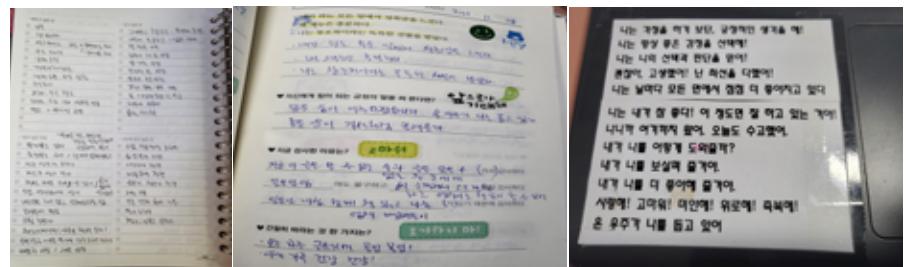
위기의 순간, 산소마스크는 나부터

“비상시 산소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약자를 도와주십시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 산소마스크와 구명조끼를 들고 내가 먼저 쓰러진다면?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생을 구하기 전에 교사인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여유라는 것도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민규 교수는『생각의 각도』에서 그것은 마음가짐, 생각의 각도 차이라고 말한다. ‘사연이 있겠지’, ‘뭔가 생각이 있겠지’, ‘그 정도면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도 학생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교사에게 산소마스크가 되어 줄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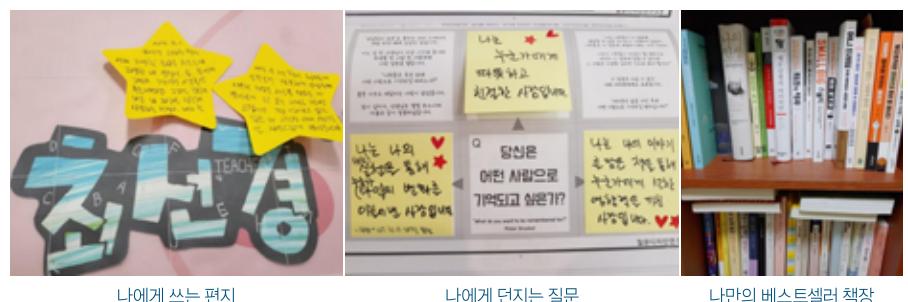
- (1) 꿈 리스트·인생 설계도·묘비명 작성해 보기: 어떤 교사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지 큰 그림을 그려 봄으로써 중심을 잡을 수 있다.
- (2) 감사 일기 쓰기
- (3) 긍정 확인 쓰기
- (4) 공동체와 함께하기: 함께하기의 힘은 세다!
- (5)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완벽하려는 마음 내려놓기
- (6) 스스로 격려하기·자기 규정 새롭게 하기: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등의 말로 스스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몸 움직이기·체력 관리하기: 에너지가 부족하면 기분까지 처지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몸을 움직여 신체 에너지를 먼저 끌어올려 보자.



꿈 리스트

감사 일기

긍정 확인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던지는 질문

나만의 베스트셀러 책장

연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자

교사는 자신을 계발하는 재교육(Re-booting)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 할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에게 직접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연수에 참여하는 다른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도 많다. 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나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힘 든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위로를 받기도 한다.

수업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있어도 학급경영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드물다. 어쩌면 담임 교사 역할을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학급경영 관련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요? 관련 연수를 몇 시간이나 들었나요?”

학급경영도 분명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끊임없이 독서와 연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지를 떠올리자. 담임 교사는 학생과 매일매일 시간을 나누고 일상의 공간에서 접촉하며 교육적인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러한 책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찾아보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자격 연수, 그리고 다양한 사설 기관에서 하는 자율 연수가 많다. 연수에서 관련 주제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연수에서 만난 동료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연수를 찾아 듣는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 이므로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역량을 키우는 최고의 자기 계발은 독서이다

모두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것이 독서이다. 독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 (1) 독서는 자신을 찾아 행복해지는 길이다. 독서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책 내용을 실천하거나 그것에 빗대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
- (2)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독서는 생각을 이끄는 좋은 도구이다. 자신을 위한 독서 시간, 즉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 두지 않으면 다른 일에 떠밀려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시간 없이 하루를 마감하게 된다.

- (3) 간접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책에는 저자의 인생이 담겨 있다. 저자와 깊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실천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해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책 속의 중요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이제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 (1) 매일 정해 놓은 양을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루 두 페이지도 괜찮다.
- (2) 하루의 1퍼센트, 15분 동안 책을 읽는다. 물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책을 읽는다면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3)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적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본다. 이는 자기 경험과 책 내용을 연결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 (4) 혼자 읽지 말고 모임을 구성해 여럿이 함께 읽는다. 혼자 하면 쉽게 지치지만 함께 하면 지속할 힘을 얻을 수 있다.
- (5)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는 새벽 독서를 추천한다. 새벽 한 시간은 낮의 세 시간에 버금가는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새벽 시간에는 집중력이 높아진다. 또한 새벽 기상을 통해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
- (6) 리뷰를 써 본다. SNS, 개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책을 매일 조금씩 읽고 나서, 혹은 완독 후 리뷰를 통해 자기 생각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쓰기 싫은 날에는 사진이라도 남기자. 그러면 나중에라도 자신의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 후 리뷰를 남기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많은 내용을 정리하기 힘들 때는 ‘나만의 인용구 베스트 3’만 적어 본다. 그러나 이마저도 힘들다면 읽은 책에 대해 간단하게 별점을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리뷰 쓰기 활동을 지속하면 연간 독서량을 파악할 수 있다. ‘본 깨적’ 읽기도 추천한다. ‘본 깨적’ 읽기를 통해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생각을 키울 수 있다. ‘본 것’은 작가가 한 말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고, ‘깨달은 것’은 읽은 것에서 내가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작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내가 바로 실천할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라

평화롭고 행복한 교실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교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동학년 교사들과의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반만의 특색 있는 학급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년 전체에서 일관된 메시지로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대로 된 생활지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학급경영에 대한 자신의 서투름을 공개하는 것 같아 자꾸만 감추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동료 교사에게 나누다 보면 참 희한하게도 서로에게 힘을 얻는다. 특별한 처방을 받는 것도 아닌데 동료 교사가 내 아픔을 들어 주고 이해해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동료 교사와 혹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동안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면 교사의 자존감도 높아진다.

다양한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던 중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의 개념을 접하고 크게 공감했다. ‘잡 크래프팅’, 즉 ‘직무 재창조’란 공식적인 역할과 업무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업무 범위와 관계를 조정하여 스스로 동기를 일으키는 노력을 말한다. 효과적인 잡 크래프팅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의 난이도와 범위 조정하기: 자신의 권한 내에서 과제의 개수나 난이도를 조정하면 개인의 역량과 과업의 난이도가 조화를 이루며 업무 몰입도가 향상된다.
- (2) 고객 및 동료와 관계 재구축하기
- (3) 자신의 일에 긍정적인 의미 부여하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끊임없이 나만의 철학을 세울 필요가 있다.
- (4) 자신의 강점을 찾아 투자하고 발전시키기: 약점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강점을 강화하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개발하자.
- (5) 동료와 함께하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친다. 오래 가려면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 나와 함께할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처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기발한 발상은 어쩌다 만난 약한 연대(Weak Tie)에서 나온다. 매일 만나던 사람만 만나지 말고 생소한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한다.

잡 크래프팅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직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특히 ‘동료와 함께하기’에 크게 공감했다. 학교 안의 동료 교사들이 마음이 맞아 의기투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교 밖에서라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에게 ‘그 아이만을 위한 단 한 사람’이 필요하듯이 교사에게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다른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교육 공동체에서는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가 필요하다. 배울 곳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 우선 나부터 현장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나아가 그것을 공유하며 서로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 그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The image consists of two parts. The top part is a screenshot of a blog post titled "HELLO MY NAME IS 선경지" from the website "교사의 책상". The post includes a sidebar with various links and a footer with social media icons. The bottom part is a photograph of a handwritten Korean poem on lined paper. The poem reads: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삼례하여
나들이 불며 하이 나고
눈이 맛은 기쁨 즐여라
나쁜 날씨를 봐라.
눈은 날씨의 즐거움 봐라
- 홍예진.

2021. 12. 6
66일/23주째 11일차

The right side of the image shows a portion of the blog's sidebar with a list of recent posts and their dates.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활동(블로그 운영, 손글씨 연습)

[2] 낯선 행동을 다루는 소통의 기술_문제 행동이 아니라 ‘낯선 행동’이다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학생의 감정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감정적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아이의 ‘욕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기분이 어때?”라고 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 상황과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우선 일상적인 대화에서 갈등의 씨앗을 키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임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료나 가족에게 교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소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올해는 이미 망했으니 내년에 좋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지금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는 것! 아이들을 탓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담임 교사는 갈등 상황을 증폭시킨다. 낯설고 어색한 학급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때 교실 내 갈등은 최소화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마법 같은 전략은 없다. 다만 평소 필자가 실천하고 있는 ‘낯선 행동’을 하는 학생들과의 긍정적 관계 맺기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한 활동들



집단 상담(네임텐트로 자기 소개하기)



생각 날리기 활동



아침 자습 시간 돌아가면서 도서 낭독



아침 자습 시간 인문 고전 책 소개 영상 시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하라

경쟁이 아닌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학급경영을 한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둠 대항이나 반 대항 단합 대회가 이에 해당한다. 반 대항으로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연습과 응원에 몰두한다. 또 칭찬 나무에 칭찬 스티커를 30, 60, 90, 100개 채울 때마다 반 전체에 헤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때 칭찬 스티커를 받는 방법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낯선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이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실제 적용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필자는 이미 학생들이 스티커 하나를 더 받기 위해 교과 선생님들에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저희 수업 잘했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학급 구성원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들에게서 ‘우리 반’,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올 때, 즉 학급에 공동체 의식이 자리할 때 담임 교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학생들의 안정감과 즐거움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담임 교사는 학생들에게서 이 같은 심리적 보상을 받으면 고된 업무를 견딜 내적인 힘을 얻는다.

드러나게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라

학생을 칭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그 학생을 좋은 학생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교사가 자신을 좋게 평가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더 나은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좋은 행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칭찬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교사나 학부모에게 학생을 칭찬하는 것이다. 학생의 귀에 들어가게 그 학생의 좋은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때로 큰 효과를 가져온다.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특정 학생의 낯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해당 학생이 교무실에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이)가 영어 시간에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학생이 듣게 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유대감이 쌓인다. 나는 때때로 조례, 종례 시간에 특정 교과 선생님이 우리 반 분위기가 좋다고 칭찬했다는 말을 “수학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수학 시간에 너희들이 그렇게 집중을 잘했다면서? 7반 수업 분위기 좋다고 소문이 났어.”라고 전하고는 한다. 이렇게 하면 담임인 나는 물론이고 수학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학부모들에게도 학생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 후 학부모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다. “어머님, ○○(이)한테 담임 선생님이 학교생활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 꼭 전해 주세요. 실제로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학생이 교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학생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하라

1인 1역은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 준다. 이때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선택하게 하면 그 효과가 더 좋다. 1인 1역의 효과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할 때,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시작부터 완성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일에 더 혼신적으로 몰입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책임감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작은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내는 경험을 통해 더 큰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그러니 교사는 미덥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작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금씩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무책임한 학생에게 그 학생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상기시키는 지도 방식을 계속한다면 그 학생은 훨씬 더 무책임해질 것이다. 핵심은 교사가 집중하는 행동은 확장되고, 무시하는 학생의 행동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무책임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이 발전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환영받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낯선 행동을 덜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교사가 자신에게 부탁이나 심부름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부탁이나 심부름은 학생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도 높여 준다. 동시에 학생을 칭찬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낯선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심부름이나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유머를 장착하라

필자는 하이 개그로 아이들을 웃음 짓게 만들고는 한다. 물론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내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보려고 나를 웃기려 애쓰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과의 첫 만남에서 자신의 별명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여 스스로를 소개해 보자. 예를 들어, 필자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영어 이름이 Belle인데, 미녀라는 뜻이야. 앞으로 선생님을 미녀라고 불러 줘. 선생님은 예쁘다는 말보다 어리다는 말을 더 좋아해.”라고 말한다. 이렇게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건네면 경직되지 않고 편안하게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약간의 아래 개그도 나누며 낙관적이고 행복한 교실 분위기를 만들자. 이것은 학생의 낯선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다.

필자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면 일단 그 학생의 이름을 크게 부른 후 심부름을 시킨다. 해당 학생은 혼날 것을 예상했다가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안심한다. 그러면 낯선 행동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관심 전환 기법이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스트레스에 덜 집중하게 된다. 필자는 출입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설 때 아이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하라고 한다. 즐겁다고 생각하면 우리 뇌는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주 사소하더라도 긍정 에너지가 교실에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치를 꼭 마련하기 바란다.

결정적 시기에 관심을 표현하라

모든 학생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알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의 이야기를 완전히 알 수는 없다. 모든 좋은 행동과 낯선 행동은 학생의 개인 사정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그 학생의 입장에 온전히 서지 않고는 그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의 욕구를 알아차려야 한다.

한편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학생이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은 교사의 탓이 아니다. 교사가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다 보면 오히려 학생을 탓하게 되어 관계가 더 틀어지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 반은 3학년 7반이고, 최선경 선생님이 담임이다. 최선경 선생님은 뭐든 안 해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반드시 해 주고자 노력하고,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잘 느껴진다.”

이 글은 필자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생활을 돌아보며 쓴 것이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존데레’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다가 가끔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내비치면 “어,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놀라고는 한다. 생각지 못한 순간에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학생들은 ‘와, 우리 선생님한테 저런 면도 있었구나.’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의외성이 주는 매력은 상당히 크다. 엎드려 있는 학생에게는 “너는 맨날 잠만 자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 어디 아프니? 아파서 누워 있는 거니?”라는 말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너, 괜찮아?” 이 짧은 말은 ‘난 네가 걱정돼.’라는 뜻이다. 내게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선생님이 자신에게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진다고 느끼면 어떤 학생이든 더 잘 행동하려고 하지 않을까? 때로는 교사가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에 작은 관심과 염려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낯선 행동이 줄어들기도 한다.

교사가 마음을 쓴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자동으로 알아 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이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스스로 교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교사는 아이에게 자신이 그를 믿는다고 확신시킴으로

써 그 아이의 관심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눈빛, 말, 보디랭귀지,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의 관심을 학생에게 전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시키자. 그러면 낯선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유대감을 쌓으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학생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사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한다.

공감하는 대화를 습관화하라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관계 개선도 힘들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공감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계 회복 방법이다.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여다보면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상대가 이야기할 때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화의 단절을 불러온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오롯이 집중하고 끄덕이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자세도 교육을 통해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공감 대화를 습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 비우기, 귀 기울이고 침묵하기, 상대방 인정하기’의 자세를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각 비우기’는 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잠시 내 생각과 체계를 내려놓아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귀 기울이고 침묵하기’는 말 그대로 조용히 집중하여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때 공감의 리액션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마지막은 ‘상대방 인정하기’이다. 모르는 분야를 학습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분야를 학습할 때는 몰입감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말에 몰입할 수 있다. 즉 겸손이 전제됐을 때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감 대화이다.

담임 교사는 학생을 위해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담임 교사 역시 학생들의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며 학급에서 담임 교사로서의 존재감이 명확해야 지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교육적 기술이 있어야 상처받지 않는 관계와 소통하는 교

실을 이룰 수 있다. 학생 생활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닌 교사와 학생들 간의 신뢰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교사가 학생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학생들과의 공감 대화를 통한 상담으로 시작되고 완성된다. 담임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교실을 위해 공감 대화를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많은 훌륭한 연수에서 제안하는 학급경영이 교실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교사들이 들은 연수의 강사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속의 고민은 가져오지 못하고, 달콤한 결론만 대뜸 교실에 적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스스로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 낸 학급경영은 아이들을 기다려 주고 믿는다는 대원칙 아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도 참고 인내하며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고민 없이 연수를 듣고 형식만 빌려 온 학급경영은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뭐야?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다르잖아, 뭐 이래?’라며 포기해 버린다. 씨를 뿌린 후 새싹이 돋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학생들과의 관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완벽한 교육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교사도 없다.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교사가 되려다 보면 부정적 상황을 직면할 때 자칫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무력감으로 전이되기 쉽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보내는 일 년 동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분명히 콩나물시루의 콩나물처럼 조금씩 자라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먼 훗날에라도 정말 중요한 변화는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자.



교사는 누군가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여기엔 마법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며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 『내 안의 빛나는 1%를 믿어 준 사람』 중에서

교사는 한 번에 한 아이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중에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교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N

* 최선경 선생님의 학급경영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경지명 놀이터

blog.naver.com/dntjraka75



선경쌤의 선경지명

youtube.com/@user-wo5pj6jn5h



자유학기제, 지금 우리 학교는...

황유진

『슬기로운 중학 생활』 저자이자 상암중학교 교감이다. 수학 교사로 21년 동안 근무했으며 연구부장, 교무부장으로서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4년 동안 교육과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며, 제1회 자유학기제 실천 사례 연구 대회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1등급을 수상했다. 현재는 유튜브 '왔쌤TV'를 통해 자유학기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합니다. 그동안 자유학년제에서는 221시간, 자유학기제에서는 170시간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선택하여 운영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102시간을 확보하여 자유학기를 운영합니다. 물론 주제 선택 활동과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 네 개의 영역으로 운영하던 자유학기 활동을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 두 가지 영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013학년도부터 연구학교에서 시작되었던 자유학기제가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년 말이 되면 학교마다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자유학기(년)제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운영할지’, 자유학기제의 경우 ‘1학기에 운영할지, 2학기에 운영할지’ 등에 대한 고민을하게 됩니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5학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야 하니 지금까지 자유학년제를 운영한 학교에서는 다시 자유학기제로 운영해야 하는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의 과정부터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이나 정보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학기 자유학기제? 2학기 자유학기제?

4년간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연구학교 운영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서울지역 중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장학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자유학기제 운영을 준비하는 많은 학교의 고민을 접하게 됩니다. 구성원 간에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입니다. “선생님은 어느 학기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구성원 간 학기별로 나타나는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고 학교 여건이나 교육 공동체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의견 수렴의 과정입니다. 현재 1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다음 학년도에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중에서 무엇을 실시하면 좋을지 그 희망을 묻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희망한다면 1학기가 좋은지, 2학기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습니다. 설문의 결과를 학교의 여건이나 교직원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가 결정되었다면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식처럼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며 운영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2023 한 권으로 보는 자유학기(년)제』에 제시된 자유학기제 준비 및 운영의 흐름입니다.

자유학기제

단계	시기	흐름도	주요 추진 사항
사전 준비	10월 ~ 11월	교원 연수(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교원 자유학기제 이해 연수 실시 - 자유학기제 이해 촉진 및 교과 전문성 향상
		교과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과별 시수 조정 여부 협의 - 전년도 시수 조정 교과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 수렴 - 차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방향에 따른 협업과 공감대 형성
		교육과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교과별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시수 조정 교과-시수 결정 필수 조정 시수에 따른 자유학기 활동 편성 논의 및 시수 배당 필수 차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제출 - 학급 수, 교원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확정 - 최종 교육과정 편제표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교무부)
준비	12월	전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교직원 워크숍에서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공유 - 신학년 교육과정 안내 및 학사 일정(안) 공유, 의견 수렴 -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표 모형 검토 및 전교사 의견 수렴
		자유학년제 지원 지원 발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지원 자원 발굴 및 협조체계 구축 - 11월~3월(또는 연중) 에듀파인 업무 관리시스템 공문 및 업무 게시판에 안내되는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검색 및 신청 - 행정구청, 혁신 교육지구 등에서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확인 및 신청 - 지역사회 지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1월 ~ 2월	희망 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자유학기 활동 희망 수요 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신입생 등록 기간(또는 예비소집일) 활용
		예산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예산 교부액(예정) 안내 - 학교 규모(학생수 기준) 차등 지원(*실제 교부 3월초 예정)
2월 또는 7월~8월		개인위탁 운영자 채용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개인 위탁 운영자 채용 관련 업무 처리 - 수요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만 교내 교사가 운영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개인 위탁 운영자를 채용하면 도움이 됨 - 업무 처리 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위탁 운영자 선정 계획 내부 결재 개인 위탁 운영자 채용 공고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채용 대상자 내부 결재 및 채용 계약 - 개인 위탁 운영자 채용 관련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별로 계약하되, 만족도 조사 및 근무 실적 평가 후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6개월+6개월 근무 후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함(심사 결과 재선정될 수는 있음)
		프로그램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과 교사 및 시수 배당 필수 자유학기 활동 수업 담당 교사 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자유학기 활동 담당 교사 회의 및 운영 방법 안내 - 학생들 희망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 - 교사 간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체화 학년 협의회에서 3월 초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 또는 교과(창체) 시간 활용 가능 필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방안 협의 신규 전입교사 대상 연수 및 자유학기(년)제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준비	2월 또는 7월~ 8월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자가 작성 후 총괄 부서에서 수합 -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초안 작성 후 자유학기제 운영위원회(또는 TF팀)에서 협의 후 타당성 등 검토 - 자유학기제 예산이 학교 기본 운영비로 교부되므로 총괄 부서에서 예산안을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하여 심의 -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교육지원청 제출
		신입생 예비 소집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대상 자유학기제 개념 및 자유학기 활동 신청 방법 안내 -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동행한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 운영 방향 및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등 학교 설명회 개최 가능 - 자유학기 활동 신청서 수합 및 반편성
운영	3월~ 7월 또는 8월~ 2월	자유학기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및 평가 방법 지속 개선 - 자유학기 활동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운영 - 운영 과정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내실있는 운영 필수 자유학기제 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에 대해 학생·학부모 피드백 필수 운영 계획서 정보공시 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항목]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유학기 활동별 운영시수,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서
평가 및 환류	7월~ 8월 또는 12월~ 2월	자유학기만족도 조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자유학기 만족도 조사 및 개인 위탁 운영자에 대한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결과를 통해 재계약 여부 판단 - 2학기 자유학기 활동 운영을 위한 개인 위탁 운영 채용 절차 진행 2학기 자유학기 활동 수업 담당 교사 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자유학기 활동 담당 교사 회의 및 운영 방법 안내 - 학생들 희망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최대한 반영 - 교사 간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체화 필수 자유학기 생활기록부 작성 및 점검, 학교생활통지표 작성 및 배부
		전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전 교사 워크숍을 통해 운영 평가 및 성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방안 논의 및 차기 계획에 반영

어떤 교과의 시수를 조정할까?

다음 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과 시수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과별 교육과정, 학급 수, 교원 수급 상황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교과에 대한 전문성일 것입니다. 학교별로 교직원 대상 자유학기제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년도 시수 조정 및 교과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방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학기제

시수를 조정한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줄어든 시간으로 인해 교수 학습 내용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배우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원 및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수업 참여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협동 학습이나 토론 수업, 실험 실습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여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불어 주제 선택 활동이나 진로 탐색 활동 등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주제 중심 교과 융합 수업 등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교과의 교사가 담당 교과의 핵심을 살리면서 다른 과목과 공통된 주제나 소재를 엮어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만의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자유학기제의 종류는 전국의 중학교 숫자만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학기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형태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규모와 학부모의 요구, 교사 현황, 지역 인프라 등의 특색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생 등록 기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연수와 가정통신문,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수요 분석과 의견 수렴으로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사전에 발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중(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신학기 3월 사이) 에듀파인 업무 관리 시스템의 공문 및 업무 게시판에는 기관별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이 안내되므로 학사 일정 등을 고려 하여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우리 학교 학사 일정에 맞지 않는 경우 혹은 해당 기관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대한 고려도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나 활동비 등을 자유학기 활동 네 개 영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각종 체험에 필요한 비용, 주제 선택 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구 구입비 등에 대한 담당자들 간의 논의가 요구됩니다.

수요 조사 결과 학생들은 원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강사 혹은 지역 연계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사비 혹은 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의 구체화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정해졌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담당자 회의입니다. ‘바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만의 자유학기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동안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운영자 회의를 생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연수가 많아서 모두들 잘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종종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고는 했습니다. 처음으로 주제 선택 활동을 운영하게 되었거나 전입 교사가 있다면 우리 학교만의 자유학기제의 특징,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생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담당자 회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모두의 출발점을 동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명칭 정하기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제 선택 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명칭이 통일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짜깁기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명칭을 1차로 수합하고,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학교만의 자유학기제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명칭을 수정하는 과정도 의미있습니다. 같은 과학 실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과학 실험 탐구반’과 ‘확고냥막그냥 과학 실험’의 명칭이 주는 이미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선생님의 경우, 다양한 소재와 장소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학기제 안내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담당 부서는 겨울방학이나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1학기 운영을 계획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와 선택, 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학년 초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을 자유학기 활동의 일부로 운영하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안내 및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학생에게는 중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

자유학기제

고, 학교 입장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년 초 적응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구분	주제	주요 활동 내용
진단 활동	인지적·정의적 발달수준 진단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우리 학교 생활 안내 - 학교 사용 설명하기	우리 학교 학습 환경	•학교 교실 및 특별실 등 위치 및 역할 알기 •미션을 통해 학교 환경 이해하기
	우리가 만드는 교실	•급훈 정하기 •서로 마음 이해하기 - 회복적 학교생활
	우리 학교 주요 환경 탐색 (도서관, 급식)	•도서관 기능 및 이용 방법 •급식과 관련된 위생 및 이용 방법 알기
	우리 학교 주요 환경 탐색 (워클래스, 생활규정)	•워클래스 기능 및 역할과 이용 방법 알기 •우리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학습 환경 탐색	•학교 인근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학교 생활에서 나의 계획 및 노력 생각하기
자유학기(년)제 이해하기	자유학기(년)제 등기유발 프로그램	•자유학기(년)제 이해 •학업계획, 생활계획 세우기 •우리 학교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소개
	자유학기(년)제 홍보 및 안내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안내 •자아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 중요성 •피드백 필요성과 방법
디벗 (스마트기기) 활용 디지털 기반 학습	디벗(스마트기기) 사용 안내	•계정 관리 •스마트기기로 학습관리플랫폼(구글 잠보드, MS 화이트보드, MS 원노트, iOS 넘버스,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 연동 •온라인 교실 입장, 스마트기기로 과제 확인 •공유문서로 모둠활동 참여, 자신의 창작물 공유 •과제 제출, 선생님께 질문, 선생님의 피드백 확인
	학급별 디벗(스마트기기) 활용 규칙 세우기	•나의 스마트폰(스마트기기) 사용 습관 확인 •스마트기기 사용의 장점과 단점 •우리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예절 •학교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 수립/학급(또는 학년, 학교)의 생활규칙
	[디벗 관련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원격교육→디벗 자료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및 코딩 활동과 연계할 수업 사례, 웹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프로젝트 진행하기, 다양한 웹·앱 활용하기

출처: 2023 한 권으로 보는 자유학기(년)제, 서울시교육청

기초 학습 능력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진단 활동을 비롯하여 학교 시설물을 둘러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자유학기 활동으로 기초 학력 향상 지원

위에서 제시한 예시 내용과 같이 진단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및 일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학력 책임 지도 및 자유학기제 예산을 활용한 맞춤형 수학 체험 교실 운영 예시입니다.

- **제목:** 체험 키트를 활용한 수학 문화 체험
- **예산:**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 예산, 자유학기(년)제 예산
-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습 부진 학생 20명 내외
- **운영:** 회당 2시간 × 총8회
- **비용:** 1회용 키트 20,000원 × 20명 × 8회=3,200,000원
- **목표:**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탐구 활동을 통해 스토리텔링, 스팀학습을 통해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

차시	키트	프로그램 내용	비고
1	이미지로 기분 표현하기	프로그램 안내 및 마음열기 프로그램 진행	
2	주판 만들기	고대의 다양한 수가 담긴 수학사 탐구	수학사랑
3	십이면체 달력	달력의 역사와 수학적 의미의 탐구	
4	원기둥 거울	좌표와 일대일 대응을 활용한 표현 활동	
5	마법의 숫자카드	사칙연산으로 알아보는 마법 속 원리	
6	별팔면체	닮은 입체도형의 성질	
7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피라미드 모양과 전개도(부분과 전체의 비교, 규칙 발견)	
8	포트폴리오 발표하기	가장 흥미로운 체험 수학 내용 발표하기	



출처: 2023 한 권으로 보는 자유학기(년)제, 서울시교육청

앞의 예시는 자유학기제와 기초 학력 보장 관련 예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입니다. 드릴 학습지 혹은 문제집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수학 교구와 체험으로 수학적 개념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생들의 수준과 참여도를 살펴보고 수학 체험 키트를 네 개만 구매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교육 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수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집 위주의 부진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의 진단 결과 또는 학습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위한 맞춤식 문제와 분석표를 제공할 수 있어서 교사-학생-학부모 피드백에 효과적입니다.

- **제목:** 디지털 교육 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수학
- **예산:**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 예산, 자유학기(년)제 예산
-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습 부진 학생 20명 내외
- **운영:** 회당 2시간 × 8회
- **비용:** 디지털 교육 데이터 프로그램 이용비(학생수에 따라 다름)
- **목표:** 학교 디지털 교육 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문제 및 피드백 제공하기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

차시	키트	프로그램 내용
1	진단 주제 테스트	프로그램 안내 및 진단 테스트, 분석표 설명
2	맞춤형 프로그램 1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 제공 및 피드백
3	맞춤형 프로그램 2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 제공 및 피드백
4	맞춤형 프로그램 3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 제공 및 피드백
5	맞춤형 프로그램 4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 제공 및 피드백
6	맞춤형 프로그램 5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 제공 및 피드백
7	맞춤형 프로그램 6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 제공 및 피드백
8	최종 테스트	최종 테스트, 분석표를 통한 피드백



출처: 2023 한 권으로 보는 자유학기(년)제, 서울시교육청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며 운영하는 새로운 자유학기제

2013학년도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가 어느덧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 연간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교과 수업 시수의 조정에 대한 고민이 한가득이었다면 이제는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대부분의 고민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네 가지 영역의 자유학기 활동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역량 강화 등의 연수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모두의 출발점을 동일시하는 동기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 학습 공동체의 운영,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이해 연수, 학생 대상의 학기 초 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영하면서 터득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등이 공유되고 반영될 때 더욱 성장하는 자유학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N**

*황유진 선생님의 연구 활동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왓쌤TV

youtube.com/@whatssamTV





AI 디지털 교과서 톺아보기

얼마 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교육부와 언론을 통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이슈로 잠잠해 보이지만 내년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주도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 문항, 보충 심화 학습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에듀넷 티-클리어 등 외부 자료와 연계가

조재범

보라초등학교 교사이다. ICT로 시작해 영어 그리고 메타버스, 인공지능(AI)을 교육에 접목시키고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23년째 교육 일선을 지키고 있다. 현재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교육 이슈와 초등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모든 교사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교사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크리에이터협회(t-creator.com)' 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23년 경기 교사 연구년 연구교사로서 미래 교육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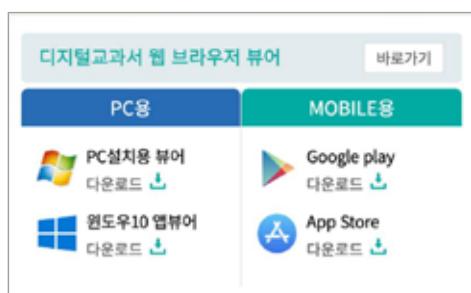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홈페이지

가능한 학생용 교과서를 일컫는다. 서비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사회, 과학, 영어), 중학교 1~3학년(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 영어 과목(영어, 영어 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이다. 모든 학년에서 영어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시수가 많은 국어나 수학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현 디지털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전용 앱과 웹으로 동시에 접속 가능



기존 디지털 교과서 접속 방식

현재 디지털 교과서는 전용 앱과 웹으로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접근성 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다. 전용 앱으로만 접속이 가능하면 수시로 하는 업데이트와 기기의 용량 면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앱에 저장된 콘텐츠로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 할 수 있다. 반면 웹으로 접속이 가능하

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고 용량 문제가 해결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다양한 콘텐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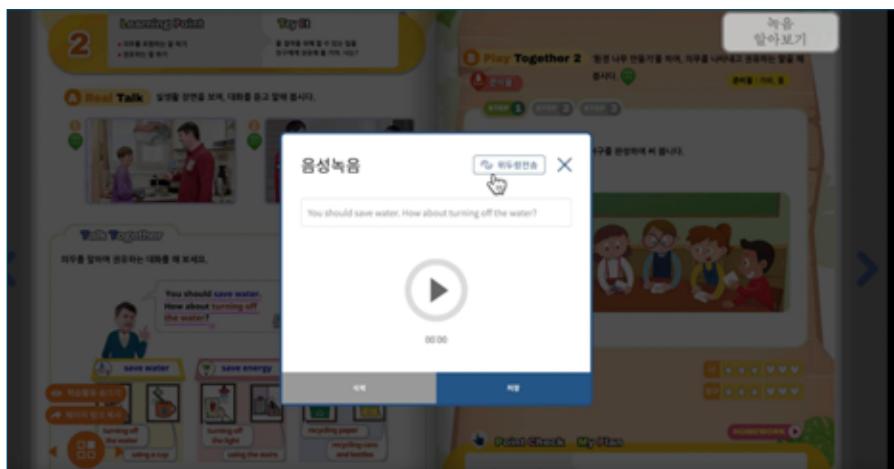
디지털 교과서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AR마커를 활용해 가상체험이 가능하다. 이는 사회, 과학 과목에서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학습 자료이다.



AR마커를 통해 증강현실을 구현한 화면(출처: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홈페이지)

(3) 개인 학습 기록 저장 기능

수업 시간에 자신의 목소리로 필요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을 위드랑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에 메모하거나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등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음성을 위드랑으로 전송하는 화면(출처: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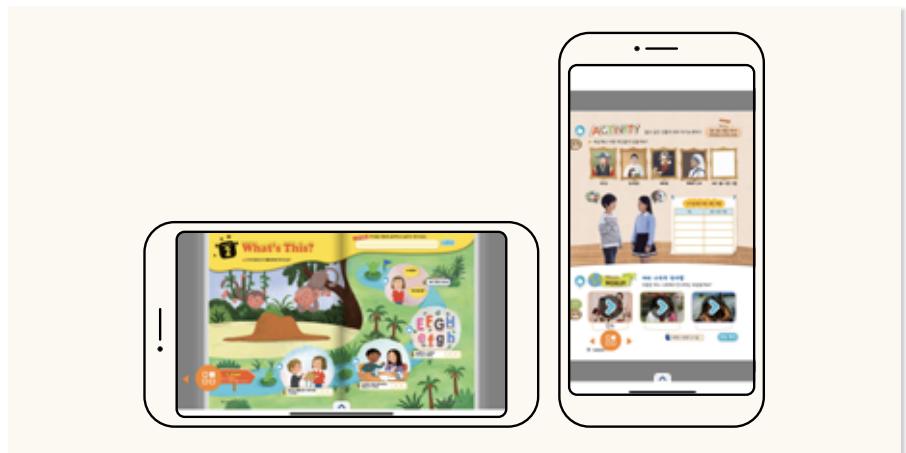
또한 서책의 형태를 디지털화하여 교사나 학습자가 사용하는 데 이질감이 없고 수업 시간에 서책형 교과서의 보조 수단으로 충실히 활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이지만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만큼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교과서의 한계

(1) 다양한 디바이스 이용의 어려움

앱과 웹을 동시에 활용하는 점은 좋으나 앱이 완벽하지 않은 편이다. 꾸준한 업데이트로 안정성과 기능은 향상되었지만 기본적으로 PC에서의 작동에 최적화되어 있고 휴대폰용 화면이 제공되지 않는다. 아래의 휴대폰 화면 이미지를 참고로 하자면 휴대폰에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세로로 보면 상하에 여백이 생기고 가로로 보면 글자 인식 자체가 쉽지 않다.



휴대폰 화면에서 보는 디지털 교과서

(2) 아쉬운 AR 기능

AR 기능이 탑재되어 사회, 과학 교과서에 활용되는 시도는 좋았으나 앱이 매우 불안정하고 완성도가 아쉽다. 일단 실감형 콘텐츠라는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안드로이드와 iOS를 모두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 그나마 성능이 안정적인 편이다. 그마저도 최적화가 잘 되지 않아 휴대폰 사양에 따라 구동 성능이 제각각이다.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3) 사용하기 쉽지 않은 위두랑과의 연동

학생들의 자료가 위두랑과 디지털 교과서에 연동이 되는데 오류가 많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학습자의 녹음 음성이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다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아직은 많은 것이 아쉽다.

가장 아쉬운 점은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파악해 개별 학습을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가 쉽게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고 평가와 피드백에 반영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학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 현장에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은 변화를 가져오고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되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의 활용이 용이하고, 학부모 또한 학습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이스(NEIS) 및 시도교육청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또한 앱이 아닌 웹으로 구동되고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구동할 수 있어 프로그램 설치나 업데이트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이므로 용량의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구성도(출처: 교육부)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시보드이다. 대시보드는 한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교육부에서는 세 가지 대시보드 화면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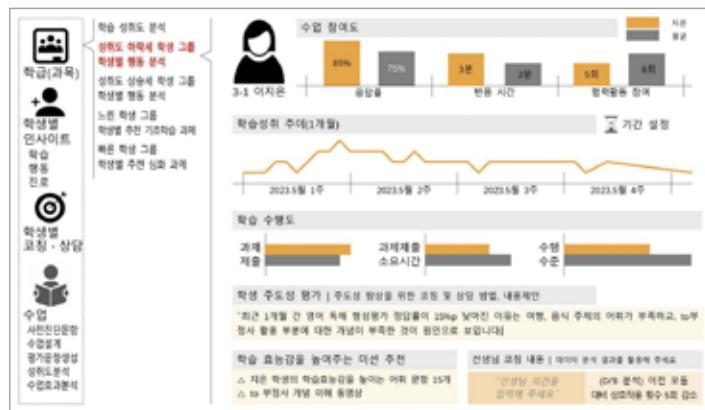
학생용 대시보드 예시(출처: 교육부)

현재 디지털 교과서에는 없고, 일부 사교육 유료 서비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화면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학생용 대시보드에서는 왼쪽에 바로가기 메뉴들이 보이고,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가운데 화면에서는 교사의 학습 피드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인지적, 정의적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AI에게 질문하기, 다문화 번역기 등도 있다.



학부모용 대시보드 예시(출처: 교육부)

학부모용 대시보드에는 학습의 학습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메뉴들이 왼쪽 화면에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 화면에는 교사의 양적, 질적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영역별 분석 자료를 통해 자녀의 학습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학, 진로 추천 메뉴까지 있다. 각종 과제 수행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학습에 얼마나 참여했고 성장했는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혹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교사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대시보드를 보면 교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용 대시보드 예시(출처: 교육부)

교사용 대시보드는 앞에서 본 대시보드와 결이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 두 개의 대시보드는 학습자 중심이라면 교사용 대시보드는 교수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화면 왼쪽 메뉴에서 학급 전체와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를 위한 메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각 학생의 수업 참여도, 학습 성취, 수행도 등을 볼 수 있고 AI 분석을 통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미션을 추천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만 살펴봤을 때는 완벽해 보인다.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같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면 꼭 그렇지 않다. 필자가 T.O.U.C.H 연수 강사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AI 디지털 교과서의 방향을 적어 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1.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기반의 구축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대해 많은 교사가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 태블릿PC가 들어와 있지만 그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태블릿PC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구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태블릿PC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되려면 1인 1 태블릿PC로는 부족하다. 최소 학생 대비 120%의 태블릿PC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의 속도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속도와 안정성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앱이 아닌 웹에서 구동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중단은 단 한순간도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AI 요소를 활용해야 하므로 지금보다 더 빠른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일이 많지 않지만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전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소 한 시간 이상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태블릿PC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 업데이트, 유지 보수 등은 학교 기피 업무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태블릿PC가 투입된다면 이러한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 실무사를 배치하여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거나 교육청에서 권역별로 관리 요원을 순회시키는 방법 혹은 외부 유지 보수업체를 교육청 단위로 계약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2. 안정적인 구동

AI 디지털 교과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능보다는 알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화려한 그래픽, 다양한 효과, 놀라운 사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일관 구성이다. 보통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화려한 UI(User Interface)를 강조하는데, 이보다는 UX(User Experience)를 강조했으면 한다. 쉽고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한 기능이나 과도한 정보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습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또 고사양 태블릿PC에서 작동되는 디지털 교과서는 사용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전에 태블릿PC를 보급받은 학교들은 벌써 노후화 걱정을 하고 있다. 만일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그램이 고사양 기기를 필요로 한다면 현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3. 유연한 접근성과 통합성

AI 디지털 교과서는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므로, 유연한 접근성과 통합성이 필수적이다. 사용자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는 개인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하다. 이러한 기기에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플랫폼 간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연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운영 체제와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며, 모든 기능이 각 기기에서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 성과, 피드백 등의 정보를 기기 간에 쉽게 동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통합성은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어 나갈 수 있게 해 주며,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습 관리 시스템(LMS), 온라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동되어야 한다.

4. 현장 중심의 AI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요구와 학교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다음과 같이 현장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과정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설계, 내용, 기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팀이 적절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장의 실제 요구와 맞물려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과정에서도 교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들이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경험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수업에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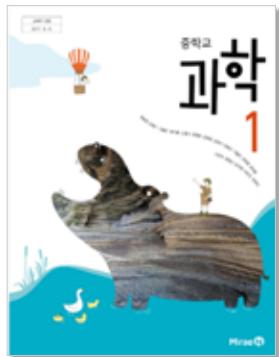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친화적인 접근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협업적 개발 과정과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앞으로 적용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틀어보았다.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현장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려만 하기보다는 다가올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에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아야 우리 교사들이 앞으로 생길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N**

*조재범 선생님의 에듀테크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
youtube.com/@bestcho





미래엔 과학 교과서 활용 후기 창의적 융합 수업의 파트너

이지선
성남 동광중학교 과학 교사



미래엔 과학 교과서
살펴보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는 성취 기준에 맞게 내용이 명확하고, 구조가 논리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더불어 적절한 난이도와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어 학습자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적 자료가 제공되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용해 본 미래엔 교과서는 이러한 역할에 충실했다.

1. 도입 영상을 이용한 수업의 발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몇 년 전부터 하브루타 교육법에 관심이 있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활동에 대한 연수를 받았는데, 이때 발문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각 단원마다 필요한 질문을 고민하던 중 미래엔 교과서의 도입 영상과 실험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실제 과학 활동지 질문과도 연관 지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각자의 생각을 서로 말해 보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오늘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는 계기를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업 전에 어떤 주제로 대화할지 미리 파악하고, 서로 다른 답변을 통해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어떤 개념적 변화를 겪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②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을까?

1. [하브루타] 짹과 함께 [교과서 98~99쪽]을 보면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민관을 채워보세요. 먼저 A를 말은 학생이 먼저 (홀수문항)을 질문하고, B가 대답하고, A도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면서 적습니다. 다음에는 B가 (짝수문항)을 질문하고 A가 답을 해보는 순으로 해보세요.

질문을 큰 소리로 읽기		대화(A:)	대화(B:)
A	1)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 만나는 다양한 생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과서에 제시된 도움 영상 활용에 따라 작성된 활동지

2. 도입 실험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1학년 과학 교과서 1단원 ‘지권의 변화’에 소개된 지구계 ‘꼬마 지구 만들기’ 도입 실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수업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과학 연수를 통해 ‘미니 지구 관찰’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투명한 유리병 대신 페트병을 활용하여 죽백나무를 심어 꼬마 지구의 구성을 지구의 구성 요소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수업을 구상했다.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었지만, 꼬마 지구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이 자란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며 지구계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다. 학생이 1인당 한 개씩 만들어 과학실에 비치해 두고 과학실에 올 때마다 직접 만든 ‘꼬마 지구’를 살펴보며 과



‘꼬마 지구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 활동

학 개념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년간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업도 진행했다. 이듬해 2학년이 된 학생들은 1학년 때 만든 ‘꼬마 지구’를 활용하여 2학년 과학 교과서 4단원 ‘식물과 에너지’ 단원의 광합성과 연계하여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다.

3. ‘생활 속 과학 원리’ 코너 활용 수업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 5단원 ‘생활 속 과학 원리’ 코너에는 ‘팝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라는 질문이 소개되어 있었다. 옥수수 알갱이 속에 약간의 수분이 들어 있어 열을 가하면 두꺼운 껍질 속에 들어 있는 수분이 수증기로 변한다. 이때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를 해서 부피가 크게 늘어나므로 옥수수 껍질이 터지면서 팝콘이 만들어지는 실험인데, 1학년 과학 실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다.

학생들은 눈으로 직접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고, 또 팝콘을 맛보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과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을 얻게 되는 것 같다. 학기 말 평가에서 가장 호평이 높았던 실험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다.



‘팝콘 만들기’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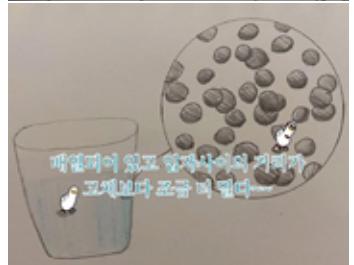
4. 창의 융합 코너의 활용

1학년 과학 교과서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에 소개된 창의 융합 ‘과학 역량 기르기’ 코너의 ‘과학 뮤직비디오 제작’을 3년째 상시 평가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수업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한 뒤 그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고 주제에 맞게 개사를 하여 발표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과학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상태 변화의 예시를 추가로 찾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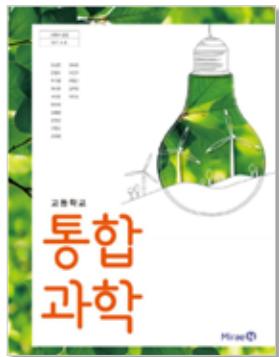
학생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은 영상을 편집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들은 직접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에서 나오는 화면처럼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치를 넣거나 유명한 영화를 패러디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활동을 통해 과학적 개념 습득은 물론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살펴볼 수 있었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이 코너는 각 모둠이 만든 뮤직비디오를 서로 발표하며 모둠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다른 반과 공유함으로써 학년 말 ‘과학 축제’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실제 본교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를 가장 마지막 단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더욱 그 빛을 발했다.



학생들이 제작한
과학 뮤직비디오 영상들

한 차시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엔 과학 교과서에는 학습에 필요한 활동 및 탐구 자료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창의적 융합 수업이 가능한 코너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수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과학에서 다루기 어려운 개념들을 다양한 실험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고 생활과 연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더 재미있는 수업 구상에 미래엔의 교과서와 온라인 자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N**



미래엔 통합과학 교과서 활용 후기

학생과 교사를 위하는 수업 재창조의 교과서

김경미
용인고등학교 과학 교사



미래엔 과학 교과서
살펴보기

학생의 읽기 능력을 고려한 교과서

1. 과학 과목의 통합과 문해력의 중요성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목 중 하나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연 과학 분야의 기본 개념들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과학 과목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수능의 과학 문제가 그러하듯이 고등학교 지필 고사 문제 역시 수능 유형처럼 주어진 <보기> 조합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에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2.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미래엔 통합과학 교과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문장으로 쓰여 있다. 중학교 때보다 어려워진 내용과 문장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고 학생 스스로 교과서를 읽어 낼 수 있도록 교과서의 문장 구성력이 좋다. 본문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생소한 단어를 보조단에 설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 자료와 활동은 학생들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사의 수업을 고려한 자료 구성

1. 간편하게 활용하는 스마트 수업 자료

미래엔의 엠티처를 통해 제공되는 스마트 수업 자료는 단순히 PPT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행 폴더 안에 수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가듯 원하는 대단원과 소단원을 선택해서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교과서 수업 후 빈칸 채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를 숨겨 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 화면 배치는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교사에게 수업 준비는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중요한 과정인데,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수업 준비의 효율성을 높였다.

2. 보기 편하고 활용이 용이한 교사용 교과서

교사용 교과서는 과하게 친절하다 싶을 정도로 학습 지도안, 학습 활동지, 수업 자료 PPT, 실험 영상, 도움 영상 등이 한 페이지 안에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깨알 같은 글씨로 배치되어 있다.



교사용 교과서

3. 부교재 『거꾸로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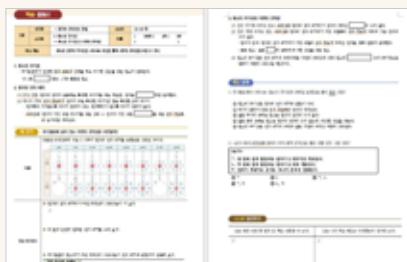
『거꾸로 교실』은 교사 위주의 일제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배움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이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익힐 수 있다. 이런 수업이 가능하도록 『거꾸로 교실』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활동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까지 안내하고 있어 모둠 활동 수업 적용 시 시행착오를 줄여 주며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수업 활용 사례] 교과서 32-33p '원소의 주기성과 자연의 규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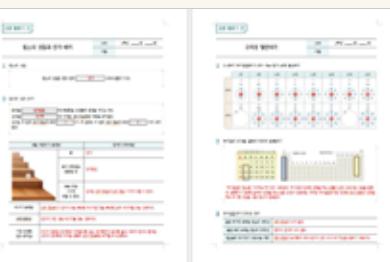
[1차시] 교과서 읽기

수업의 기본은 학생 스스로가 교과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해서 수업 내용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첫 수업 시간은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를 읽으며 개념을 읽히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지를 나눠 준다. 그 활동지로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빈칸을 채우고 문제도 풀며 내용을 다시 확인 한다. 학생들이 모든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를 하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발표 횟수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활동지가 수업의 필수적인 자료였다.



교과서 진도에 맞춘 학습 활동지



『거꾸로 교실』의 모둠 활동지

[2차시] 모둠 활동

미래엔에서 제공한 『거꾸로 교실』 교재에 있는 활동을 수업으로 구성한 차시이다. 『거꾸로 교실』에는 다양한 모둠별, 개인별 활동지가 있는데 이를 활용한 사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서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제공되어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



『거꾸로 교실』의 모둠별 주기율표 만들기 활동지

모둠 활동에서는 모둠 활동지를 채우는 과정을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모둠별 주기율표 만들기’ 활동은 4~5명이 한 모둠이 되어 직접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의 모형을 만든다.

주기율표를 이해하는 과정은 교과서 후반에 나오는 화학 결합과도 연결되고, 2학년 때 배우는 화학 단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수업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릴 정도로 공을 들였다.

색종이의 크기를 선택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모둠을 이끄는 학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20개의 원자 모형을 모두 만들기 위해서는 모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좋은 활동이다. 모둠 활동에서 적극적인 학생 한두 명이 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마다 주기와 족을 정해 주어 모두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구성원 모두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색종이와 스티커를 사용해서 각 주기와 족에서의 규칙성까지 고려하여 직접 주기율표를 만드는 과정은 교사에게 배우는 것보다 동료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후기에서도 모둠 활동을 하며 수업 시간에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익힐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교실 뒷면의 칠판에 붙여 두고 1단원을 배우는 동안 활용 할 수 있었다.



교사에게 수업은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교과서는 그런 수업의 기본이 되는 도구이다. 미래엔 통합과학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교육 내용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내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있다.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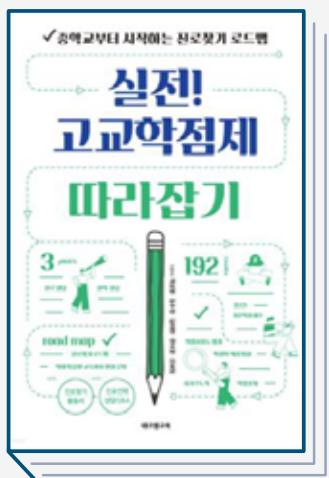
이 책을 소개합니다



『어서 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최선경 저, 미다스북스, 2023

23년차 교사이면서 학부모이기도 한 저자는 교육을 잘하고 싶으면 이끄는 사람도 그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중학교 생활 3년 동안의 내신 관리 비법, 습관 관리, 긍정적인 마인드 만드는 법까지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을 할 때 마주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전! 고교학점제 따라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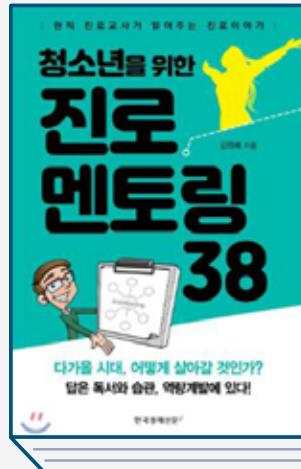
곽상경, 김수정, 김태현, 문미경, 오혜정 저, 테크빌교육, 2022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교실 속 진로 찾기 활동부터 자기 주도적 학업 설계까지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실천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활동지와 함께 담아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학교와 교사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한 안내서이자 해법서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멘토링 38』

김원배 저, 한국경제신문, 2019

저자는 11년간 진로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고민과 학부모와의 고충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진로 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저자의 진로 상담 노하우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 형성의 중요성과 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저자만의 통찰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청소년 진로 수업 대본』

권태용, 김대연, 김희숙, 박주원, 이태화 외 1명 저, 마인드빌딩, 2022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나 강사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진로 수업 내용을 어떻게 흥미롭게 전달할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진로 지도를 담당해 온 전문가들의 실제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진로 지도에 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교육 공모전 ‘제10회 미래교육상’ 접수 시작



선생님에 의한, 선생님을 위한 교육 공모전

제10회 미래교육상

미래 교육을 주도하는 뜻있는 선생님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모접수 2023.09.21(목) ~ 2023.12.31(일) PM 12:00

수상자 발표 2024.02.08(목)

시상식 2024.02월 중 진행(추후 공지)

제10회 미래교육상
응모 접수 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 미래교육상 관련 문의는 mjmira@mirae-n.com로 부탁드립니다.



주 최 (재)목정미래재단

후 원 (주)미래엔

대 상 초/중/고/특수학교 현직 교사(개인 또는 팀) ※ 교과 및 경력제한 없음
 예비 교사(교대/사범대 또는 교육학과 재학생)

공모분야 미래교육연구/ 인성교육혁신/ 특수교육연구/ 동화·인문도서기획안/ 미래키움

시상내역 총 상금 3,600 만원

접수방법 미래엔 엠티처 홈페이지 www.m-teac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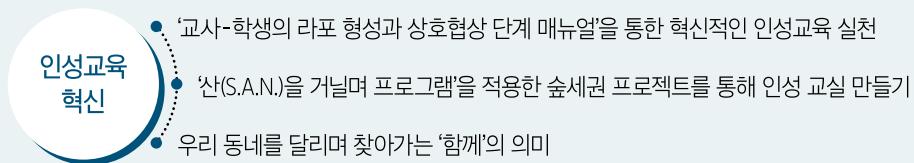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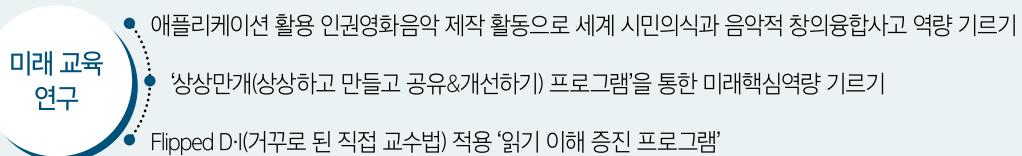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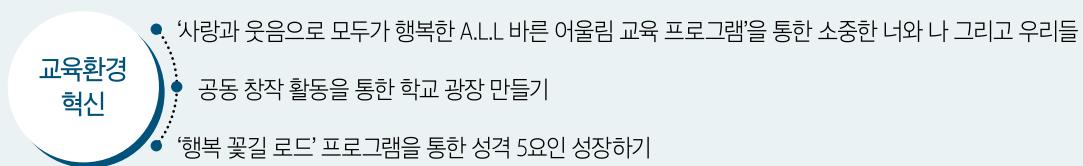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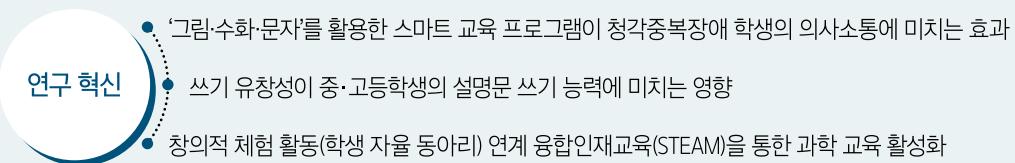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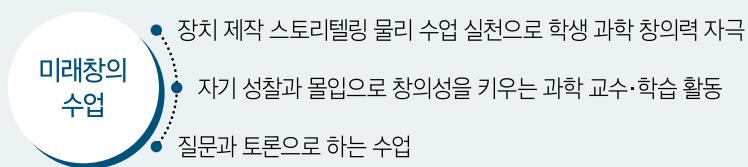
공모 분야	공모 주제	제출 서류 및 응모 대상
미래 교육 연구	<p>미래 교육 활동 및 연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가상현실, 메타버스, 온오프 체험형 수업 자료 등을 활용한 수업 연구 사례 - 4차 산업혁명·환경 등 사회 및 환경 관련 중요 트렌드 체험 활동형 수업 사례 <p>미래형 교수 서비스·교육 사업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가상현실, 메타버스, 학교 현장 서비스, 학습 서비스 등 기술 및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 또는 사업 모델 제안 	<p>20p 이내의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p 요약문 - 사진, PPT 등 보조자료 * 미래 교육 연구 우수 수상작은 엠파이어 서비스 및 사업화 검토
인성교육 혁신	<p>인성교육 연계 활동 및 연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융합, 주제 융합 통한 인성 교육 수업 연구 사례 	<p>응모대상(개인 또는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교육 연구/인성교육 혁신 응모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현직 교사 - 특수교육 연구 응모 대상: 특수학교 현직 교사
특수교육 연구	<p>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급 수업 및 교수 연구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우수 교육 사례 또는 특수교육 수업 모델 제안 	
동화·인문 도서 기획안	<p>교과 연계 동화·인문 도서 기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대상 학업 및 인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의 동화·인문 시나리오 - 학교 수업이나 학생 참여 활동 과정에서 창작물 가능 - 교사 및 예비 교사 참가 가능(미래 교육 연구/인성교육 혁신과 별도 심사) 	<p>8p 이내의 기획안과 시나리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p 기획안 - 5p 이내의 시나리오 * 팀(다수 인원) 단위 참가 불가 * 우수 수상작은 출간 검토 <p>응모대상(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교대/사범대 또는 교육학과 재학생)
미래키움	<p>예비 교사 교육 봉사활동 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 사범대생 교육 지도 봉사활동 수기 모집 - 미래엔 사회공헌 활동 참가 학생 대상 <p>교육사회 공헌 활동 아이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출판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육 사회 공헌 활동 아이디어 모집 	<p>10p 이내의 보고서 및 아이디어 기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p 요약문 - 사진, PPT 등 보조자료 * 팀(다수 인원) 단위 참가 불가 * 우수 수상작은 미래엔 CSR 사업 검토 <p>응모대상(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교사(교대/사범대 또는 교육학과 재학생)

*'미래교육상'은 미래엔 교육활동지원 플랫폼 '엠파이어' 공모전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미래교육상’의 분야별 주요 수상작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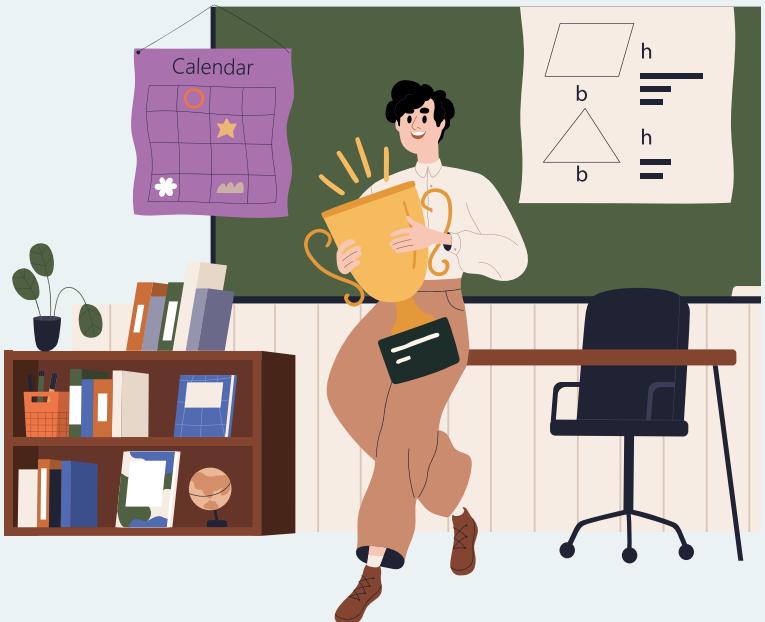
창의성을 키우는 학습 활동부터 숲세권 프로젝트까지



역대 수상작은 ‘미래교육상’
명예의 전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상’, 이렇게 준비했어요!

역대 수상 선생님들의 공모 꿀팁



수업 과정을 기승전결로 정리해 보면 연구 과제가 떠오를 거예요!

김재원 선생님(제7회 수상)

저는 미래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한 수업의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공모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본인만의 특색 있는 수업 과정에 미래 교육 자원 활용 사례를 연계한 내용이 기승전결의 스토리 형식으로 보고서에 나타나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수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학습 동기, 수업 설계, 수업 방법, 평가 개선 등)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미래 교육 활용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도 해 보아야겠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보고서에 포함된다면 좀 더 풍성한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주제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학생, 교사의 수업 평가적 측면도 보고서에 상세히 제시된다면 더 좋겠지요?



평소 상상만 해 보았던 새로운 수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보세요!

이현준 선생님(제9회 수상)

미래교육상은 ‘공감’이라는 단어와 매우 잘 어울리는 공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다수 선생님이 공감할 만한 문제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어 버린 교실과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수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연구가 현재 교육 현장에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상은 ‘포기’보다는 ‘끈기’라는 단어와 잘 어울립니다. 기존에 연구했던 주제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주제로 매년 도전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미래교육상 수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받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어색하지만, 교사로서 수상이 주는 행복한 감정을 올해 꼭 느껴 보기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힘!



꾸준한 블로그 활동이 미래교육상 공모전에 도전할 용기를 줬어요!

이한솔 선생님(제8회 수상)

저는 평소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 수업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직전 학기에 진행한 수업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을 다집니다. 귀찮고 힘들기도 하지만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이유는 매년 수업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 수업도 블로그에 정리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글을 쓰며 마음에 담아 둔 아쉬움을 동력 삼아, 매 학기 더 좋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활동은 좋은 수업을 위한 마음가짐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록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미래교육상’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간 수업 활동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고된 작업일 텐데, 블로그에 공들여 남겨 놓은 기록들이 그 수고로움을 덜어 줄 것입니다. 저 역시 백지에서 시작했다면 ‘미래교육상’에 응모할 마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블로그에 기록해 둔 수업의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다 보니 학생들과 함께한 의미 깊은 기억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하는 수업을 보고서로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은석 선생님(제6회 수상)

저는 인성교육 혁신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교직 생활 속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적용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다른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이나 교육을 정리하여 제출해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상을 받지 않더라도 수업을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인성교육 혁신 부분에 지원하면 그로 인해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하고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을지 체계를 잡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도 중요하지만 도전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교직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경험을 나눠 보세요!

유승민 선생님(제8회, 제9회 수상)

교육 현장에서는 유행처럼 지나가는 단어들이 많은데, 유독 교사 중심, 공동 연구, 가르침이라는 부분에 저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사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을 만나고, 동료 교사와 마음이 통하는 지점을 찾았을 때 보람을 찾고 생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말처럼 좋은 교육이란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만남이 가르침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즉 시간·장소·공간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는 교육공간혁신, 작년에는 미래교육연구 부문으로 지원했습니다. 두 번 모두 동료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공동 창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교육상 참가를 위해 수업의 과정과 결과를 남김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기록으로 남기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의 문서화가 이뤄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동료 교사와 공동 연구를 해 볼 수도 있어요. 기획안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배움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곳간에 보물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수업의 뼈대와 피드백을 자료로 남겨 두려 합니다. 미래교육상이 저에게 만들어 준 좋은 습관이기도 하지요. N

『혁신수업N』은 선생님의 생각을 聽합니다

다양한 수업 사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타 교과이긴 하지만 수학 관련 창의적인 수업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렌드에 맞춘 챗GPT 관련 기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계속 늘어나는 요즘 상황에서 좋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

_박석완 선생님(창원 반송여자중학교)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권장을 넘어 필수로 요구되고 있어,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도구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웹진에서 다양한 과목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들을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주제 선택 활동)과 인문고전 읽기 활동 소개 자료는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실질적 수업 현장 활용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것 같아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 적용이 용이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_김정은 선생님(고양 백양중학교)

공학도구로 본 수학에서 알지오매스의 활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만 중등 과정에 머물러 있는데 고등 수학에 적용하는 예시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GPT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리즈로 연결하면 좋을 듯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기사는 처음으로 다루는 것인데 장점도 좋지만 야기될 수 있는 단점도 제시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최근 스웨덴은 학교에서 종이책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기사 보도가 있습니다. 반추해 볼 사안입니다.

_김형진 선생님(부산 건국고등학교)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디지털 매체에 접속하는 방법을 미리 연습시킨 후 본격적인 학습에 임하는 사례가 좋았습니다. 또한 학습력이 부족하지만 디지털 매체를 잘 다루는 학생과, 학습력이 좋지만 디지털 매체를 잘 다루지 못하는 학생을 고려해 짹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구성한다면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이 가장 간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였고, 미리캔버스는 조금 더 난도가 있지만 완성도 높은 자료를 창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_김서현 선생님(평택 민세중학교)

『혁신수업N』은 선생님의 마음과 通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혁신수업N』은 온라인 웹진으로 편리하게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엔 엠티처(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에서
 <E-book 보기>와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COVER PEOPLE을 추천해 주세요

『혁신수업N』은 수업 혁신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결과를 전하는
 매거진인 만큼 표지에 선생님의 빛나는 얼굴을 담으려 합니다.
 교사로서의 철학 및 노력이 남다른 선생님을 알고 계시다면
 엠티처(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 > 참여 광장에
 커버 피플을 추천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혁신수업N』의 성장 동력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진솔한 의견입니다.
 이번 호를 보고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나 칭찬하고 싶은 점, 아쉬웠던 점,
 취재를 바라는 이슈 등을 엠티처(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 >
 참여 광장에 남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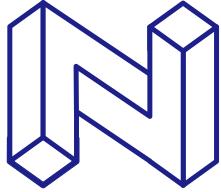
* 참여 광장에 남겨 주신 후기와 제안, 추천이 매거진 제작에 반영될 경우
 커피 상품권(1만 원) 등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혁신수업N』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래엔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www.m-teacher.co.kr

혁신 수업



Vol. 20 | 2023 | 겨울호 | 중고등

선생님을 위한 수업 혁신 전문지

COPYRIGHT

발행일 2023년 12월 10일

발행인 신광수 | 퍼낸곳 (주)미래엔 | 등록번호 제 16-67호

편집 책임 황은주 | 편집 윤선미, 황선득, 최영아, 전다해

디자인 책임 손현지 | 디자인 김병석, (주)보명씨앤아이

제작 지원 강승훈, 봉대중

촬영 ZARL 스튜디오 | 그림 양승용

*본 도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주)미래엔이 본 도서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본 도서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복사,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act Mirae-N

www.m-teacher.co.kr

(우)06532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1800-8890

비매품 이 책은 선생님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무료
증정본입니다.

미래엔 엠티처는 소통과 협력의 미래 교실을 꿈꾸며 선생님의 수업 연구를 지원합니다.

www.m-teacher.co.kr



미래엔 엠티처
바로가기

엠티처

미래엔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www.m-teacher.co.kr

스마트 수업

PC, 모바일 모든 환경에서 교과서 E-Book,
스마트 PPT 수업 구현

교과서자료

실시간 업데이트로 최신의 수업·평가 자료 제공

수업혁신자료

비주얼씽킹 등 온-오프라인 모든 수업에
적용되는 수업 혁신 사례

멀티미디어자료

개념클립영상, EBS영상 등 수업의 흥미를
더하는 최적화된 영상 자료

선생님이
교과서다



미래엔은 교과서로 세상에 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선생님은 각별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과서의
가장 아름다운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엔에게 선생님은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는 미래에도

선생님, 당신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